

## 현대차·SK·한화 동맹 자율차 혁신기술 베팅

이스라엘 '아브 로보틱스' 투자 4D 영상 레이더 핵심기술 보유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기대 커

현대자동차와 SK, 한화가 조성한 스타트업 투자 펀드(AI얼라이언스)가 자율주행차 혁신 기술에 베팅했다.

이 펀드는 자율주행차용 4D 영상레이더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아브 로보틱스(Arbe Robotics)'에 투자하며 혁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물론,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까지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AI얼라이언스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아브 로보틱스'가 모금액 3200만 달러(약 372억 원) 규모의 펀딩에 참여했다. 이번 펀딩에 AI얼라이언스가 투자한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AI얼라이언스는 2017년 현대차와 SK텔레콤, 한화자산운용이 혁신 기술을 갖춘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지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한 펀드로, 3사가 각각 1500만 달러씩 출자했다.

AI얼라이언스가 투자한 아브 로보틱스는 2015년 설립된 차세대 4D 이미지 레이더 칩셋 솔루션 제공업체로, 자율차량 및 첨단안전자보조시스템(ADAS)의 고해상도 감지를 가능케 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아브 로보틱스의 레이더 기술은 초당 50개 이상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어 최소 150m에서 최대 1km까지 전방의 장애물을 파악하고 사전에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일반 레이더에 비해 100배가량 정교한 것으로 평가되며 자율주행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아브 로보틱스의 레이더 기술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기술 수준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레이더 센서는 정밀도가 낮아 3D 인식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 로보틱스의 기술은 4D 고해상도 영상 인식이 가능해 기존 레이더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 아브 로보틱스는 기술 우위를 토대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긴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I얼라이언스는 이번 스타트업 투자로 융·복합 기술 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AI얼라이언스 투자 기업인 현대차와 SK텔레콤, 한화자산운용 역시 투자수의 실현뿐 아니라 혁신 기술 정보 탐색, 글로벌 기술 동향 분석, 협업 네트워크 개척, 노하우 습득 등을 통해 차세대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대차가 이번 투자 기술과 연관성이 높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속화하고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하는 레벨 4, 5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시장에 선보여 글로벌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할 계획이다. 우선 2022년에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한 뒤 2023년 일부 지역에 운영을 실시하고, 2024년 하반기에는 본격 양산을 추진한다.

정의선 현대차 총괄 수석부회장은 2일 열린 신년회를 통해 "미래차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 가장 안전하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2023년에는 상용화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유창욱 기자 woogi@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文대통령

2020 신년사  
"투기와의 전쟁서 지지 않을 것" 스투어드십 도입·상법 개정도 "남북 '김정은 답방' 노력해야"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7일 경제 분야 정책 방향으로 '공정', '혁신', '포용'을 제시했고, '일자리'와 '노동'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특히 '공정'을 14차례 거론해 스투어드십 코드, 집중투표제 등 기관·소수 주주 권리 강화 제도 도입과 상법 개정 등 법령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

자년(庚子年) 신년사에서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투어드십 코드를 정착

시키고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나타났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를 17번 언급하면서 신년사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회복 추세 확산 △저소득 취약계층 확대 △벤처창업 지원 등 혁신경제 확산 △'규제샌드박스' 활용 확대 등 신산업 분야 지원 등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종전까지의 '북미대화 의론'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남북 양측의 노력만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 '북미대화' 의존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 기조연설을 하면서 첨단 하드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개인 맞춤형 케어를 강조하며 지능형 컴패니언 로봇 '볼리'를 소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이 이날 개인용 비행체 에어택시 S-A1 콘셉트 모델을 공개하는 모습. 정 부회장은 항공과 지상에서의 이동수단을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뉴시스



## 동반자 로봇 '볼리'·도심 나는 자동차·AR 글라스... 삼성·LG·현대차 "인간 삶을 위한 도전"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 수장들이 CES 2020 개막에 앞서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기술'보다 '사람' 중심의 혁신을 외쳤다.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CE 부문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10년은 '경험의 시대(Age of Experiences)'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경험의 시대에는 다양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재구성해야 한다"며 "삼성의 인간 중심 혁신이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날 처음 선보인 로봇 볼리(Ballie) 역시 인간의 동반자(Com-

panion) 로봇으로 정의했다. 김 사장은 CES 2020 기조연설 마지막에 "삼성의 기술은 모두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며 다시 한번 인간 중심 혁신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는 개인이 더 안전하게 첨단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최우선 순위로 돌 것이며, 착한 기술(Technology for Good)을 추구할 것"이라는 각오도 밝혔다.

같은 날 LG전자의 연구개발(R&D) 수장인 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은 CES 2020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인간의 삶을 바꿀 인공지능(AI) 기술 로드맵을 처음 공개했다.

박 사장은 "LG 씽큐(LG ThinQ)와 같

은 인공지능의 의미 있는 성장을 위해 산업 전반에 명확하고 체계화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이날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도심에 나는 자동차의 상용화 계획을 밝히면서 인간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구체화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우리는 도시와 인류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인지 깊이 생각했다"며 "끊임없이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현대차의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은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류를 위한 진보'를 이어 나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동 시간의 혁신적 단축으로 사람들이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이루고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역동적인 인간 중심의 미래 도시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송영록 기자 syr@

## 수출 '빨간불'...정부, 비상 대응 검토

석유 수급 위기시 대체 도입선 확보·비축유 방출

갈 길 바쁜 한국 수출이 이란발 유탄을 맞아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기사 8·13면

지난해 한국 수출은 542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수출액이 두 자릿수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2월 중 상승 전환해 1분기 전례로도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반도체·선박·자동차·석유제품 등의 수급 개선,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술적 반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지역 긴장 상황이 고조되면서 수출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원유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채산성이 나빠지고 투자·소비심리가 악화한다. 또 주요국 제조 원가가 상승해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하고 이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도 줄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내 원유 수급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며 "석유 수급 위기 발생 시에는 대체 도입선 확보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조속히 확보하고 비상시 매뉴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 등 비상 대응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9650만 배럴, 민간 비축유와 재고까지 합치면 약 2억 배럴을 확보하고 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페데리코 카살레노 삼성 북미 디자인혁신센터 센터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호텔에서 열린 기조연설에서 찬드니 카브라 디자이너와 함께 삼성전자 웨어러블 보행보조 로봇 '젬스'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박일평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사장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 발전 단계'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 ‘지능형 로봇’ 선보인 삼성... ‘AI의 미래’ 제시한 LG

삼성전자가 CES 2020 기조연설 자리에서 첨단 하드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지능형 로봇 '볼리'를 최초로 공개했다. LG전자는 CES 2020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봇과 인공지능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다. 두 회사는 기술 알리기보다 개인에 최적화된 경험 제공과 고객 라이프 혁신에 초점을 맞춘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CE부문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 기조연설'에서 지능형 컴퍼니언 로봇(Companion Robot) '볼리(Ballie)'를 들고 나왔다.

김 사장이 "하이 볼리"를 외치자 야구공보다 크고 핸드볼공보다 작은 로봇 볼리가 그를 따라다닌다. 더 빨리 움직이라고 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천천히 걷자고 하면 걷는다.

볼리는 공 모양으로 이동이 자유롭고 사용자를 인식해 따라다닌다. 사용자 명령에 따라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폰, TV 등 주요 스마트 기기와 연동해 다양한 홈제어를 수행할 수 있다.

## 사용자 따라다니는 '볼리'

첨단 하드웨어와 AI 기술 결합 '하이 볼리' 말하자 스스로 이동 스마트 기기와 연동 홈제어 수행

김 사장은 "대부분의 사람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의 소유 자체가 아니라 그 제품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안정, 즐거움 등 삶의 긍정적 경험을 기대한다"며 "이 같은



김현석 삼성전자 소비자가전(CE) 부문장 사장이 지능형 컴퍼니언(Companion·동반자) 로봇 '볼리'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의 요구가 모여 기술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 뒤를 이어 무대에 오른 삼성리서치 세바스찬 승 부사장은 카이저 퍼머넌트와의 협업으로 개발된 심장질환 재활 프로그램 '하트 와이즈(Heart Wise)'를 소개했다. 하트 와이즈는 모바일기기를 활용해 만성 심장질환 환자의 심장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 의료진의 정기 진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준다.

삼성전자는 '젬스(GEMS·웨어러블 보행보조 로봇)'를 입은 사용자가 'AR(증강현실) 글라스'를 쓰고 가상의 개인 트레이너에게 맞춤형 피트니스를 받는 것도 시연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시티 비전도 소개했다. 스마트 빌딩 분야에서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같은 문제 외에도 거주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공개했다.

삼성 넥스트의 에밀리 베커 전무는 삼성전자가 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에 적용할 홈 IoT 사례를 언급하며, 거주자가 간단한 음성 명령으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거나 하나의 앱으로 전기·수도·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과 차량 출입 정보 확인, 스마트 가전제품 조작까지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

## AI 기술 발전단계 소개

캐나다 AI솔루션 기업과 협업 효율화→개인화→추론→탐구 "고객에게 더 나은 삶 선사할 것"

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인공지능의 발전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은 미국 라스베이



국내 취재진이 LG전자 사전 버스 투어에서 이동 수단에서 인공지능을 체험하는 커넥티드 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열린 CES 2020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지금까지의 AI는 시작에 불과했다"면서 AI 기술 로드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LG전자는 글로벌 유력 플레이어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날 LG전자는 캐나다의 AI 솔루션 개발 기업인 '엘레멘트 AI'와의 협업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새롭게 달라질 'AI 기술 발전 단계(Levels of AI Experience)'도 소개했다. LG전자가 소개한 인공지능 발전 단계는 △1단계 효율화 △2단계 개인화 △3단계 추론 △4단계 탐구 등 총 4단계다

특히 인공지능 발전 단계는 기술 자체의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술과 함께 인간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즉, 단계가 올라갈수록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지향한다.

1단계의 인공지능은 지정된 명령이나 조건에 따라 제품을 동작시킨다. 2단계부터는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 패턴을 찾고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다. 3단계는 여러 접점의 데이터를 분석해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 4단계는 인공지능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해 더 나은 솔루션을 제안한다.

라스베이거스(미국)=송영록 기자 syr@

# 정호영 LGD 사장 "폴더블 노트북 연내 나온다"

대형 OLED 대체화 주력 "글로벌 1등 회복" 자신감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이 대형 OLED와 중소형 플라스틱 OLED를 앞세워 경영 정상화를 이뤘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히 대형에 비해 부진한 중소형 OLED의 경우, 연내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노트북 출시를 시작으로 고객사를 늘려갈 계획이다.

정호영 사장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 개막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의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정 사장은 "올해 중점 과제들을 제대로 실행해 간다면 명실공히 세계 1등 디스플레이 회사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3가지 중



정호영 LG디스플레이 사장이 6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점 과제도 공개했다. 먼저 대형 OLED 대체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 사장은 "향후 대형 OLED 대체화는 물량 확대뿐 아니라 OLED만이 갖는 장점을 바탕으로 제품 가치를 극대화하고 신규 시장과 고객을 발굴해 수익 기반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 CES 기간 중 고객사 전용 특별전시관에서 항공 등 새로운

산업군의 OLED 제품들을 선보이며 가전 및 IT 분야를 넘어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줄 계획이다.

중소형 플라스틱 OLED 사업은 향후 성장 기회가 가장 큰 분야로 보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 사장은 "현재 가장 어려운 게 플라스틱 OLED 사업"이라며 "투자 결정이 늦었고 고객층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발, 생산, 품질 등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 고객과 협업 체제를 확립해 사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IT 업계 화두인 '폴더블' 제품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정호영 사장은 "폴더블 구현을 위한 준비는 다 돼 있다"며 "고객사의 상품기획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중국 레노버가 폴더블 노트북을 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고객사 전용 특별관 투어에서도 폴더블 노트북 mockup·실물모형) 제품을 전시하는 등 기술력 알리기에 주력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송영록 기자 syr@

# SK하이닉스, 5G·AI용 메모리솔루션 전시

"128단 4D 낸드·10나노 D램 본격 양산 시장변화 대응"

SK하이닉스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반도체 기술을 선보였다.

'메모리 중심의 세상(Memory Centric World)'을 주제로 CES에 참가한 SK하이닉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활용되는 미래 도시를 형성화하고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오토모티브(Automotive),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5G(5세대 이동통신) 등 6개의 사업 분야와 관련된 반도체 솔루션을 전시했다.

SK하이닉스가 선보인 주요 제품은 안정성·속도·전력소모·용량 측면에서 우수성이 뛰어난 5G, AI 등 미래 4차산업에 두루 사용되는 HBM2E, 서버용 DDR5, SSD 등 메모리 솔루션과 차량용으로 최적화된 내구성 높은 LPDDR4X, eMMC



SK하이닉스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 참가해 반도체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SK하이닉스

5.1 등이다. 또 5G 스마트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LPDDR5와 UFS, AR·VR와 IoT 환경 구축에 필수적인 CIS(CMOS 이미지센서) 등도 전시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올해 128단 4D 낸드 기반의 테라바이트급 고성능 낸드 솔루션과 3세대 10나노급 D램의 양산을 본격 시작한다"며 "고객들이 요구하는 경쟁력 높은 제품들을 적기에 출시해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송영록 기자 syr@



# 정의선 “8년 후 도심 나는 車 상용화”... 정부 “적극 지원”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공개**  
정 부회장, 도심 개인용 비행체 공개  
“시간·공간 경계 허문 UAM 구현  
車산업 수년 내 순위변동 있을 것”  
국토부 “항로 인프라 확대 등 지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020년까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를 상용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우리 정부 역시 기체 인증과 관제 인프라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CES 2020 개막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UAM 상용화는 2028년쯤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그리는 인간 중심 ‘미래 도시’ 발표 = 현대차그룹은 이날 CES 미디어데이를 통해 인간중심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다.

역동적인 미래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Purpose Built Vehicle) △모빌리티 환승 거점(허브) 구축 계획을 내놨다.

UAM을 이용해 허브에 착륙한 이용객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PBV를 타고 육상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허브는 UAM과 PBV를 고객에게 연결하는 공간인 동시에 사람들이 교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럿이 함께 탈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실내를 변형할 수도 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끊어짐’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를 위한 구상이다. 이를 통해 차세대 브랜드 비전인 ‘인류를 위한 진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0’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열린 현대차 미디어데이 뉴스 콘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이 ‘S-A1’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를 가속화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게 현대차의 근본적인 구상이다.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기본 콘셉트 전격 공개 = 가장 큰 관심은 이날 현대차가 밝힌 UAM이다.

앞서 현대차는 전략적으로 ‘개인용 비행체’(PAV·Private Air Vehicle) 개발을 공언했다. 지난해 11월 정 수석부회장은 임직원 소통의 장인 ‘공감 톡’을 통해 “향후 사업은 자동차가 50%, 개인용 비행체 PAV 30%, 로봇릭스 20%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날 간담회에서 PAV 콘셉트 S-A1을 작은 모형으로 공개했다. CES 개막 당일 ‘현대차 버스’에는 실물 크기의 PAV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모빌리티노베이터스 포럼(MIF) 2019’에서 PAV 상용

화 목표 기점을 2029년으로 밝힌 바 있다. 3개월 만에 일정이 약 1년 앞당겨진 만큼,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이 이미 도출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UAM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를 실제 생활에서 검증하기 위한 실증법인 ‘모션랩’도 이미 LA에 세웠다.

최근 첫 실증사업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모션카셰어’를 시작했다. 이후 다중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실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대차가 공개한 미래 모빌리티와 UAM 추진 사업도 이 모션랩이 실제 검증에 나서게 된다.

이날 현대차 간담회 직전, 일본 토요타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거대 실증도시를 일본 내에 구축할 것”이라며 “연구원과 일반 주민 등 2000여 명이 실제로 거주하며 신기술 실증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경쟁사와 격차와 관련해 “모빌리티 분야에서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경쟁사와 비교해서 장단점을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별로) 각자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4~5년쯤 지나봐야 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CES 2020 참관과 나선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현대차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UAM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작년에 우리 부처에 ‘미래드론 교통과’를 신설했고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를 UAM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해로 삼고 있다”며 “2023년 시제기 개발, 2029년 상용화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5월 관제 공역(하늘길 항로 설정) 인증을 포함해 ‘드론교통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준형 기자 junior@

## ‘혁신’ 알아본 우버, 현대차와 맞손

2023년까지 ‘우버 에어’ 상용화... UAM 전략적 파트너십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대 모빌리티 기업 우버(Uber)와 개인용 비행체 PAV(Personal Air Vehicle)를 기반으로 한 UAM(Urban Air Mobility)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인류가 꿈꿔온 미래 이동성 혁신을 선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현대차는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다라 코스로스키 우버 CEO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0 현대차 전시관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가운데 우버와 UAM 분야 파트너십을 맺은 첫 번째 회사가 됐다.

이날 체결식은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실물 크기의 현대 PAV 콘셉트 ‘S-A1’이 전시된 가운데 진행됐다.

현대차는 우버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PAV 개발과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통합해 향후 UAM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우버와의 파트너십 구축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통해 현대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정 수석부회장은 “우버와의 협력 등을 토대로 인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람들의 이동 한계를 재정의하고,

그를 통해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다.

우버의 다라 코스로스키 CEO는 “현대차의 대규모 제조 역량은 우버 엘리베이트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차의 경험과 역량이 항공 택시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하늘을 향한 우버의 플랫폼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교통정보 분석기업 인릭스(INRIX)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운전자들이 차량 정체로 도로에서 불필요하게 허비한 시간은 연평균 97시간에 달한다.

UAM은 도로에서 낭비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물론, 교통 사고의 감소와 환경오염 저감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파트너십 체결을 시작으로 현대차는 우버의 항공택시 사업 추진 조직인 ‘우버 엘리베이트’와 긴밀한 협업을 추진한다. 우버 엘리베이트는 2023년 항공 택시 서비스인 ‘우버 에어’ 상용화를 목표로 보잉과 벨 등 글로벌 항공기 제조업체들과 협업 중이다.

현대차 UAM 사업부 신재원 부사장은 “우리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비전은 도시 교통에 대한 개념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UAM이 역동적 도시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준형 기자 junio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YOS

# 필승 코리아

# 편리 아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을 이기게 만드는 일!

**필승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무역 여건 변화에 따라 미래의 성장이 예상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산업에 투자합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을 선별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운용 보수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관련 대학 및 연구소에 지원합니다

※ 이 집행투자상품은 예금저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행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펀드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 및 수수료 외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3537호 (2019.09.03~2020.09.02) ※ 환매방법: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2(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4)영업일에 지급 ※ 보수 및 수수료: Class A: 총보수 0.877% (판매 0.340%, 운용 0.500%, 기타 0.037%), 납입금액의 0.5% 이내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 펀드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 운용회사: NH-Amundi자산운용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 “투자 촉진·신산업 육성 총력… ‘확실한 변화’ 보여줄 것”

## 경제 분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용 면에서는 지난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포용경제, 혁신경제, 공정경제’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들어선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의 많은 부분을 경제 분야에 할애했다. 지난해 내세웠던 ‘포용경제’, ‘혁신경제’ 성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 분야에 인상,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며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5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ICT(정보통신 기술) 분야 국가경쟁력이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혁신을 향한 우리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 경제 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기대되고 있으나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구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 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라며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사에서 성장률 반등의 주요 축으로 제시한 것은 ‘투자’와 ‘혁신’이다. 문 대통령은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서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굴·집행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규제·행정절차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 발표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주요 내용

- 일자리**
  -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 40대 퇴·구직자 맞춤 종합대책 마련
  -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포용 정책**
  -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안전**
  -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미세먼지 특별대책 등을 통한 선제조치 시행
- 경제·산업**
  - 벤처창업 성장 지원
  - 3대 신산업 분야 육성
  -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 공정사회**
  - 권력기관 개혁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완성
  - 부동산 투기 억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에 노력
- 북한**
  - 남북관계 개선에 박차
  - 남북 협력 협력
  - 올림픽 공동 개최 언급

뉴시스

###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반등 기업 투자 인센티브 늘리고 공정경제 정착 위해 법 개정”

### “투기 근절… 집값 잡겠다” 강한 부동산 추가대책 예고

또 문 대통령은 ‘혁신 드라이브’ 강화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3조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성장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투자와 신산업 분야에 과감한 지원을 강조한 반면, 동시에 ‘공정경제’ 기조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도 함께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

며 “시행령 제·개정을 통해 스투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정착시키고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투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한다. 세계에서는 기업 경영권 침해 등의 이유로 도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외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투기와외의 전쟁’으로 명명하고 앞으로 고강도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에 주력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도 강경한 부동산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집값이 들쭉거리면 더욱 고삐를 조여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권력기관 개혁’ 강한 의지 피력

### 정치 분야

### 공수처법 통과·수사권 조정 등 공정사회 위한 제도개혁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 완성”을 강조하면서 권력기관 구조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또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검찰 등 일각에서 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반발과 갈등이 불거졌지만,

‘공정’ 가치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한 발 더 다가섰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처리가 이뤄질 검찰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던 ‘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다”며 반성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과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편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박유천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대통령은 ‘공정’을 말하기 전에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신년사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협치 내각 제안 등 분명한 개혁방안 제시를 기대했지만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철도·도로 연결 방안 찾자” 南北관계 개선 메시지

### 외교·안보 분야

### 北美대화 교착 속 협력방안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스포츠 교류 확대 등 남북 관계의 진전 방안을 제시했다. 북미관계가 정체된 상황에서 더는 제삼자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전략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북미회담의 틀은 유지하되 동시에 남북 양측이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을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미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로 제시했다. 특히 철도·도로



국무위원들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를 듣고 있다.

뉴시스

연결사업과 관련해 기대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 방안으로 남북 체육 교류를 거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라며 “도쿄올림픽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외교 방향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중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층 미래지향적으로 진화시켜 가겠다”고 말해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 “40대·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노력하겠다”

### 사회·노동 분야

###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안착 지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발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 청년, 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갔다”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얘기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일자리정책과 관련해 “작년의 평가와 올해의 계획 모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없다”면서 “이것은 1000만 비정규직과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정 후보자 “협치 내각 구성”... 야 “삼권분립 훼손” 공격

##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협치 내각’ 구상을 밝히면서 21대 총선에선 협치 내각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 인사를 입각한 협치 내각 구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국회에 묶여 있는 개혁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해사다.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어 후반기 국정 운영을 정 후보자가 맡게 되면 협치를 통한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야권에선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어 정 후보자에 호응하지는 미지수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諸)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께 적극 건의를 드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거국 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정파와 함께 협치 내각을 구성해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협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가 협치 내각 구성 계획을 밝

여야 극한 대립에 대한 제시 “과감한 혁신으로 규제완화 총리 되면 대통령께 직언할 것 낙하산 인사 개선 적극 노력”

힌 것은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종의 대안 제시로 보인다.

협치 내각 시점을 ‘21대 총선 후’라고 명시한 이유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후 처리되는 첫 선거여서 정당 구성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야권 분열에 대한 비판에 나올 수 있어 국회가 재정비를 마치면 협치 내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협치 내각 모델로 스웨덴의 ‘목요클럽’을 꼽았다. 정 후보자는 취임 이후 매주 한 차례 노·사·정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을 초청해 대화하는 만찬 자리를 가질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 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로 가는 것에 대한 ‘삼권분립 훼손’ 지적도 의회에서의 소통 경험을 살린 협치 내각을 통해 국정 운영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야권에선 정 후보자의 협치 내각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칫 반대세력을 존중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협치 내각은 단순히 장관 자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의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면 향후 구

체적인 계획에서 진정성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기에 정비,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공직사회 변화를 위해 “무사안일, 소극행정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더불어 갖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과 같은 공직사회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

이밖에 정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사실대로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며 “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이 수시로 전달할 통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소위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한 한 낙하산 인사를 과거 정권보다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확인해 보겠으나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작정”이라고 답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 민생법안 내일 국회 통과 가능성

###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여야 ‘데이터 3법’ 등 처리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민생법안에 걸려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전행 방해)를 대부분 철회하기로 하면서 ‘데이터3법’, ‘연금3법’ 등 주요 민생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말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여온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 방침에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아둔 상태다. 한국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170여 건의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고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호응하면서 이날 열린 본회의를 9일로 미루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의 경우 9일 본회의가 열리면 일괄적으로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민생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 데이터 3법 역시 언제든 법사위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

저소득노인·장애인·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 관련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여야가 처리 필요성을 공감하는 법안이다.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은 월 30만 원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 3법 역시 법사위에 머물고 있지만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만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재차 진통이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바미당 “안철수, 다음주 국내 복귀할 듯”

### 손학규 거취·원내대표 선출 유보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은 안철수 전 의원이 다음 주 중 국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바미당은 손학규 대표가 거취 문제와 오신환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원내대표 선출 역시 안 전 의원의 복귀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주승용 최고위원과 임재훈 사무총장, 채이배 정책위의장, 박주선·김동철·김성식·최도자 의원 등 당권파 의원 7명은 7일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했다.

임 사무총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정확히 언제는 알지 못하지만, 다음 주 중에 복귀가 예상되는데, 안철수 전 의원이 복귀하면 손 대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더는 손 대표 거취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사무총장은 “여러 정보를 수집한 결과 다음 주 중에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이동섭 원내수석 부대표가 일주일 동안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말했다. 이는 안철수계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하늬 기자 honey@

2018년 한국가스공사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선(금상) 한 수상자의 작품입니다.

이 새싹은 나중엔 울창한 숲을 만들겁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연소 시 공해물질이 거의 없는 무공해 청정에너지 천연가스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가스공사



# 노인일자리 확대·청년저축 지원... “선심성 총선 공약”

## ‘설 민생대책’ 살펴보니...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설 명절과 관련이 없는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저축계좌 신설, 취약계층 여가 지원 등이 대거 포함돼 사실상 여당을 위한 총선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설 민생안정대책은 4대 분야 86개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이 중에는 설 명절과 관련이 없는 대책이 많다. 노인일자리 확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61만 개였던 노인일자리 확대를 올해 74만 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가장 12개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실내작업 중심으로 1월부터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하고 1월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만 15~39세 저소득 청년(주거·교육 급여·차상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적립해 목돈마련(3년 144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복권기금을 통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대학생과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에게 저금리(3.6~4.5%)로 자금을 지원(한도 1200만 원)하는 햇살론 유스(youth)도 이달 22일 출시한다. 연간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노인일자리 74만개로 늘어 청년 10만원 저축 댄 30만원 매칭 근로·자녀장려금 설 전 조기지급 성수품 공급 확대... 특산물 할인 통행료 면제... KTX 40% 깎아줘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올해부터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까지 낮아진 것과 관련해 근로·우수장학금을 올해 3650억 원으로 579억 원이나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지원대상은 각각 11만 명 내외, 4097명에 달한다. 국가장학금도 지난해 11~12월 신청분은 1~2월에 고지하는 1학기분 고지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중·고·대학생 2350명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권기금 장학금도 1월부터 시작한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연간 48만 원 상당)하는 사업도 올해 내내 시행되는 것이고 자궁·난소 등 여성 관련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은 설 명절이 끝난 2월부터 설 민생안정대책이라고 하기는 무리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2월 이후 본격 시행된다.

올해 1분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일

##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 ※출처: 기획재정부

<b>새해서민의 힘찬 출발 뒷받침</b> ·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조기지원 등 소득안정 지원 · 서민·청년·중장년·어르신 등 힘찬출발 지원 · 교육비·양육비 지원 확대 등 부모님·학생 부담 완화 · 중기·소상공인 설 자금 90조 원 지원, 경영애로 해소	<b>사람들이 모이는 활기찬 지역경제</b> · 지역 예산사업 조기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뒷받침 · 전통시장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1조 원 규모 판매 추진 · 코리아그랜드세일, 비자 혜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추진 · 겨울축제, 근로자휴가지원, 문화행사 등 지역관광 활성화
<b>다함께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b> · 성수품 가격안정, 구매장터(2700여개), 할인판매 등 소비촉진 · 가격점검, 식품안전·부정유통 단속 등 소비자보호 강화 · 결식아동, 노숙인 등 소외계층 위한 지원·봉사·나눔 확대 · 임금체불 해소, 가계부채 경감 등 생활속 어려움 완화	<b>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b> ·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조속한 추진 · 설 특별교통대책 추진 통한 원활한 명절 이동·수송 지원 · 연휴기간 의료·우편·쓰레기·아이돌봄 등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 · 안전사고 최소화 목표로 관계부처 합동 총력 대응

자리 예산,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의 약 43%(184조2000억 원)를 조기 지원하는 것도 결국 총선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서민·청년 생계비 등 지원 = 정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해 실내업무 중심으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94만5000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11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분을 1200억 원 내외로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한다. 대출·보증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설 자금지원은 90조 원으로 7조 원 늘린다. 이 중 신규자금 지원은 36조 원, 대출·보증 만기연장은 54조 원이다. 전년보다 각각 3조3000억 원, 3조7000억

원 확대된 규모다. 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 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국제·관세 납입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조달·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할 예정이다.

◇성수품 공급 확대 =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품목별로 농산물(4개)은 1.7배, 축산물(4개)은 1.2배, 임산물(2개)은 1.2배, 수산물(6개)은 4.3배 등이다. 직거래장터 등도 2700여 개로 확대 개설할 계획이다. 원산지·위생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달 중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하고 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한도 1000만 원)와 사업주에

대한 체불청산 용자금(한도 7000만 원) 금리를 각각 연 2.5%에서 1.5%, 2.2%에서 1.2%로(신용 3.7%→2.7%) 인하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 전국 전통시장 설맞이 이벤트·할인행사 등을 개최한다. 527개 업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쇼룸(6개)을 통해 특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도 지난해 설보다 각각 800억 원, 3750억 원 늘어난 5300억 원, 5000억 원을 판매한다.

더불어 코리아 그랜드 세일(1월 16일~2월 29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별 겨울축제·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등 지역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연휴기간(24~26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고 KTX 요금은 30~40% 할인한다. 이 밖에 연휴를 안전히 보내기 위해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 관련 예산을 1분기 중 81% 조기 배정하고 설 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요 성수품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추세의 경우 정부 대책으로 13개 성수품 중 8개 품목 가격이 평균 3.5% 하락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세종=김지영 기자 jye@



‘중동리스크’에 국제유가 상승 이란 사태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서울 종로구 연한인포텍스 모니터에 앞에서 한 관계자가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유가 그래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11월 경상흑자 59.7억 달러... 9개월 만에 증가

### 상품수지 흑자 감소폭 크게 축소... ‘노재팬’에 여행수지 개선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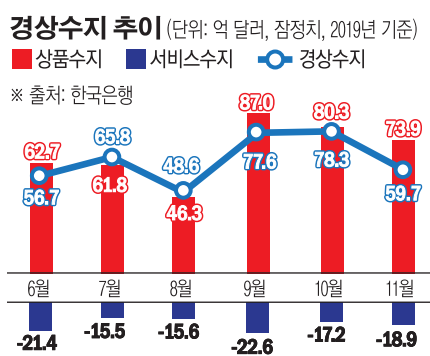
경상수지 흑자폭은 전년 동월 대비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흑자 행진은 7개월 연속 지속했다. 반도체 부진에 수출 부진이 계속됐지만 상품수지 흑자폭 감소세가 크게 줄어들었다. ‘가지 않습니다’로 대표되는 노재팬(일본 불매) 운동에 여행수지 적자 규모 축소세가 지속되는 등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이미 한국은행 연간전망치 570억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는 관측이다. 향후 경상수지를 좌우할 변수로는 반도체값 반등과, 최근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미국과 이란 간 갈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을 꼽았다.

7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59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8억4000만 달러(16.5%)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5월부터 이어진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우선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7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억5000만 달러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9개월째 감소세나 감소폭은 이들 기간 중 가장 적었다.

수출은 465억 달러로 전년 동월(518억



1000만 달러) 대비 10.3% 줄어 12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했다.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이 위축된 데다 반도체값 등 하락이 부진의 원인이 됐다. 실제 11월 반도체 수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3% 급감했다.

수입은 39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443억1000만 달러)보다 11.7% 줄었다. 역시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관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4.4% 감소한 44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선박(전년 동기 대비 -63.0%)과 반도체(-30.9%) 등을 중심으로 감소한 반

면, 가전제품(4.4%), 정보통신기기(1.6%) 등은 증가했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0% 줄어든 407억2000만 달러를 보였다. 원자재(-19.2%), 자본재(-6.0%), 소비재(-5.3%) 등이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전년 동월(21억9000만 달러) 대비 13.7% 감소한 18억9000만 달러를 보였다. 중국인(유커)과 동남아인 관광객이 증가한 반면, 내국인의 일본 출국자수가 급감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이 전년 동월보다 4억 달러 줄어든 9억5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이 주된 영향이었다.

실제 11월 입국자수는 146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9% 증가한 가운데, 중국인 입국자수는 25% 증가한 51만 명을, 동남아인은 7.5% 늘어난 41만 명을 기록했다. 반면, 일본인 입국자수는 13.8% 줄어든 26만 명이었고, 내국인의 일본행 출국자수는 65.1% 급감한 21만 명이 그쳤다.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동월 3억4000만 달러에서 9억7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유가상승에 정유회사들의 수익이 부진하다 보니 배당금 지급이 감소한 탓이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 ‘선박부품 운송 14년 담합’ 동방 등 6곳 제재

### 공정위, 과징금 68억 부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중량물(대형선박 조립 부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운송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동방, 글로벌, 세방, C대한통운, 케이씨티시, 한국통운 등 6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8억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약 14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총 34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낙찰예정자(또는 우선협상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합의를 실행한 결과 6개 사업자는 총 34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우선협상자가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낙찰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합의의 대가로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운송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중량물 운송용

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2005년부터 수의계약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가 경쟁에 다른 운송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동방에 가장 많은 27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세방(18억9900만 원), 글로벌(6억9200만 원), 케이씨티시(6억3000만 원), 한국통운(4억9300만 원), C대한통운(3억37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조선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현대중공업이 발주하는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관계에 있던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조선업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염수분사시설 확충 ‘블랙아이스’ 피해 막는다

###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

정부가 잇단 도로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를 막기 위해 결빙 취약관리구간을 2배 확대하고 자동 염수분사장치, 노면 흡파기, LED 결빙 주의표지 등을 확충하기로 했다.

국도교통부는 7일 겨울철 도로 살얼음 위험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로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수립·발표했다.

겨울철 들어도로 미끄럼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난달 상주-영천고속도로, 이달 합천 국도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이 ‘도로 살얼음’으로 추정돼 겨울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16일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로 살얼음 대책을 논의해 순찰 강화 및 예방적 제설작업 실시 등 긴급조치를 각 도로 관리기관에 지시했으며 관계기관 TF를 구성·운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결빙 취약시간(23~07시)에 순찰을 강화(4회~6회)하고 대기온도뿐만 아니라 수시로 노면온도도 측정해 응급 제설작업 등 예방적 제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를 통해 상시 응달·안개, 고갯길, 교량 등을 포함해 기존 대비 약 2배(193개소→403개소)로 확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인력과 제설장고·장비 등을 추가 확보해 전담 관리팀을 취약 관리구간에 중점 배치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올해도 행복해야쥐”

2020년. 경자년. 쥐의 해. 새해 아침.

SK하이닉스가 기쁜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올해 행복이 가득하시길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 거침 없는 미국 증시 중동쇼크에도 '랠리'

탄탄한 펀더멘털 되레 매수세  
뉴욕증시 반등하며 2000년  
글로벌 금융시장 빠르게 안정

미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자신감이 중  
동 리스크 우려를 잠재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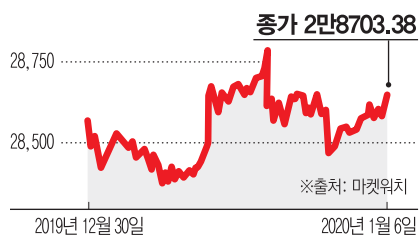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6일(현지시  
간) 장 초반 200포인트 이상 빠졌으나 이  
후 낙폭을 전부 반회하면서 오히려 전 거  
래일 대비 0.24% 상승한 2만8703.38로  
마감했다. S&P500지수는 0.35%, 기술  
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56% 각각 올  
랐다. 넷플릭스가 3.1%,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2.7% 각각 급등하는 등 대형  
IT 기업들이 증시 반등을 주도했다.

뉴욕증시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으면서  
반등하자 7일 아시아 증시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일본증시 닛케이225지  
수는 전일 대비 1.60% 오른 2만3575.72  
에, 토픽스지수는 1.62% 상승한  
1725.05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3시 30  
분 시점에 중국증시 상하이지수는  
0.59%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홍콩증시  
항셱지수는 0.49%, 싱가포르증시 ST지  
수는 0.78% 각각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지  
정학적 리스크로 혼란에 빠졌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 모습  
이다. 지난 3일만 해도 뉴욕증시는 가파  
른 하락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이란 혁명수비대 실세  
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이  
살해됐다는 소식에 다우와 S&P500지수  
는 1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  
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탄탄한 미국 경제  
펀더멘털을 근거로, 최근의 불안은 오히  
려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기  
침체라면 모를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매

뉴욕증시 다우지수 최근 5거래일간 추이



수 심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내셔널시큐리티즈의 아트 호건 수석 시  
장 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이 매도할 이  
유를 찾았다면 (미국-이란 사태로) 하나  
를 얻었다"며 "그러나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았다. 시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  
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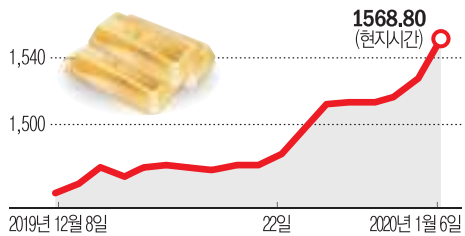
주말 새 미국과 이란의 긴장은 더 고조  
됐다. 이라크 의회가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이라크  
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  
란은 같은 날 우라늄 농축 상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 2015년 체결했던 핵합의  
에서 사실상 탈퇴했다.

캐피탈이코노미스트의 제이슨 터비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미  
국과 이란이 실제로 전면전을 벌이게 된  
다면 이란 경제가 붕괴하고 유가가 급등  
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0.5%  
포인트 이상 깎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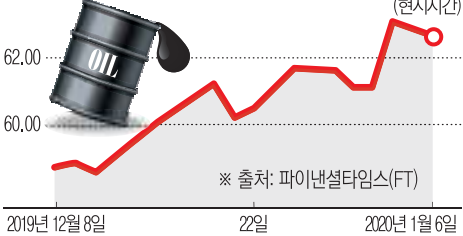
그러나 전문가들은 과거 중동발 지정  
학적 리스크에도 시장이 견실한 모습을  
유지했던 이력을 상기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2년 취임하  
자마자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을 당시 다우지수는  
오히려 2% 이상 올랐다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업체 사우디  
아람코의 핵심 시설이 이란의 공격을 받  
아 원유생산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을 때  
도 시장은 일시적으로 요동치고 나서 금  
세 회복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국제 금값 추이 (단위: 온스당 달러)



국제유가 추이 (단위: 배럴당 달러)



## “油보다 金... 온스당 1600달러 간다”

골드만삭스 “가장 안전한 투자”

새해 벽두부터 날아든 중동발 위기로 금융시  
장이 요동쳤다. 특히 원유와 금 가격이 동반 상  
승하고 있지만 안전한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  
게는 금이 원유보다 나은 헤지(위험 회피) 수  
단이 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조언했다.

6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이 고조된 이후 유가와 금값이 나란히 고공행  
진을 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금에 무게  
를 뒀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는 유가가 향후 몇 주 안에 하락할 것으로 전  
망했다. 현재 유가를 견인하는 시장 심리는  
원유 수급 차질 우려다. 미국을 향해 강력한  
보복을 경고한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  
유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상승폭이 제한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유가 변동 시나리오가 너무  
도 광범위해 정확한 가격을 책정하기 힘들데,  
현재 배럴당 69달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  
당한 수준의 공급 충격이 있어야 한다고 분석  
했다. 주요 공급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가는 향후 몇 주 안에 하락세로 전환해  
배럴당 63달러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금값은 얘기가 다르다. 제프리 커리  
골드만삭스 글로벌 상품 연구 책임자는 “역사  
를 반추해 보면, 금값이 현재 수준을 뛰어넘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한 수익을 위  
해서는 원유보다 금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 현물 가격은 1576달러, 선물은  
1579.72달러로 7년래 최고치로 뛰었다. 골드만  
삭스는 앞으로 금값이 온스당 1600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측했다. 달러 약세, 물가 상승 기대  
감, 성장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값 랠  
리를 이끌고 있어서다. 변효선 기자 hsbun@

# “올 최대 리스크는 중동사태 아닌 美 대선”

유라시아그룹 '2020 톱리스크'... “美, 누가 이기든 정치혼란”

올해 세계 경제를 뒤흔들 최대 리스크  
로 미국-이란 간 갈등이 머릿속에 떠올  
랐다면 틀렸다. 세계를 베풀 끝으로 물  
고 갈 최대 리스크는 다른 아닌 '미국 정  
치'라는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은 6  
일(현지시간) 올해 세계 경제가 당면한  
리스크를 담은 보고서 '2020년 10대 리  
스크'를 발표했다.

1위는 미국 정치였다. 11월 열리는 미  
국 대선이 발단이다. 대선을 전후해 발  
생하게 될 정치적 혼란은 외교에도 영향  
을 미쳐 세계가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  
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국  
내 정치 이슈가 1위에 오른 것은 1998년  
유라시아그룹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강  
조했다. 그러면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가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테지만, 누가 되더라도 혼란은 불가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인들은

당선자에 상관없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  
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패자  
측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법  
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유라시아그룹은 “트럼프 탄핵 국면에  
서 극단적으로 양분된 정치 환경은 사회  
불만이 폭력을 낼 가능성을 극대화시  
킨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리스크로는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을 꼽았다. 보고서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면서 데인 중국이 미국  
을 비롯한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분석했  
다. 5G 등 전략적 첨단 기술을 둘러싼  
디커플링은 다른 산업에도 파급될 수 있  
다. 중국이 해외 기술, 무역, 금융 구조  
재편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유무역을 통  
한 세계화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최근 중동 정세를 격랑 속으로 밀어  
넣은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은 8위에 그쳤



2020년 세계 10대 리스크

1위	미국 정치	6위	유럽연합 분열
2위	미-중 디커플링	7위	기후변화
3위	미-중 갈등	8위	중동 지정학적 위기
4위	다국적기업 영향력 감소	9위	남미 불안정
5위	인도 중파 갈등	10위	터키 정국

※출처: 유라시아그룹

다. 양국이 전면전에 이를 가능성이 낮  
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이  
란은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을 알고 있으  
며, 넘어서는 안되는 레드 라인도 잘 이  
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감소,  
인도의 중파 및 종교적 갈등, 유럽연합  
(EU) 분열, 기후변화, 남미 불안정, 터  
키 정국 등이 올해 주목할 10대 리스크  
로 지목됐다. 김서영 기자 0jung2@



너무 느린 코알라... 산불에 '멸종위기'  
산불로 폐허가 된 호주 캥거루 섬의 '케이프 보드' 인근 숲에서 7일(현지시간) 한 야생동물 구  
조원이 몸 곳곳이 검게 그을린 코알라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다. 호주 남동부 지역에서 5개월  
째 계속되는 산불로 코알라가 멸종 위기에 놓이면서 당국은 구출작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0명에 달하는 육군 예비군이 동원돼 산불 진화와  
야생동물 구조를 돕고 있다. 이번 호주 산불로 호주 전역에서 약 5억 마리의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가 죽었다. 특히 코알라 서식지인 유칼립투스 숲  
의 80%가 전소되면서 코알라는 독자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기능적 멸종' 상태에 빠졌을 것으로 평가됐다. 케이프 보드(호주)/EPA연합뉴스

## 미국-이란 싸움에 등 터진 아람코 보름 만에 시총 2000억 달러 증발

(거래일 기준)

이란, 親美 사우디 보복 우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의 불똥이 사우디  
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사우디아람코  
로 튀었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아람  
코 주가는 지난해 12월 화려하게 증시에  
데뷔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  
로 꼽히며 기업가치가 약 1조8000억 달  
러로 평가됐지만, IPO 이후 정점을 찍  
은 지난달 16일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은 2000억 달러(약 233조  
1400억 원) 이상 증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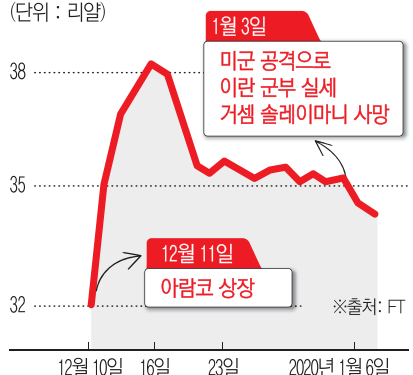
CNN은 이란 군부 최고 실세 거셈 솔  
레이마니 총사령관이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후 중동 불안이 고조된 것도  
아람코의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했다. 지난주 미국의 공격 이후 아람코  
주가는 2%가량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지난 2일 이후 6% 정도 상승하면서 배  
럴당 70달러 근처까지 올랐음에도 아람  
코 주가는 맥을 못 쳤다. 이란의 보복 가  
능성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컸던 셈이  
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국의 핵심 동맹  
국인 사우디를 겨냥해 보복에 나설 가능  
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아람코의  
핵심 석유 시설, 컴퓨터 네트워크 등이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우선 최고의 해킹 능력을 보유한 이란  
이 사이버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란은 JP모건체이스와 뱅  
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미국 월가  
의 대표 은행들을 공격해 고객들의 계좌  
접근을 막은 전력이 있다. 앞서 아람코  
도 2012년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3만  
5000대의 컴퓨터에서 부분적으로 자료  
가 삭제되거나 완전히 파괴되는 등 최악  
의 사이버 테러를 당했다.

사우디아람코 주가 추이



또 다른 가능성은 아람코의 기반시설  
에 대한 공격이다. 지난해 9월 아람코의  
정유시설 두 곳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운영이 중단됐는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의  
심해 왔다. 일각에서는 아람코 투자자  
상당수가 사우디의 개인, 기관이어서 시  
총이 상당히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그나마 최근 유가  
상승이 아람코 주가의 추가 하락을 방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유가가 떨어질 경  
우 아람코의 주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  
란 지적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수은 '노동이사제' 도입 물거품... 공수포 된 '文공약'

### 사측 추천 '유복환·정다미' 임명 정권 내 금융권 제도 도입 불가

### 금융노조 "공약 미이행 심판... 다음 사외이사 인사 때 재추진"

수출입은행 사외이사에 사측이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노동이사제'와 '노조추천이사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같은 대책은행인 기업은행도 '노조추천이사제'를 시도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금융노조는 계속해서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번 정권 임기 내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공석이었던 수출입은행의 사외이사에 유복환 전 세계은행 한국이사과 정다미 명지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들 사외이사는 사측에서 추천한 인물로, 노조 측이 추천한 인물은 선정되지 않았다. 애초 사외이사 후보 리스트에는 사측 4명, 노조 측 2명이 추천됐으나 최종 후보에는 각각 3명, 1명이 올랐다. 노조 측에서 추천한 인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학계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의 시도는 금융권에서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았다. 수은의 사외이사 임명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수은 노조 측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였기 때문이다. 수은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해 기재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노동이사제' 개요**

- 개념**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
-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좁은 의미의 노동이사제. 노동조합이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



그간 금융권에 '노동이사제' 논의가 있을 때 기재부는 "주무 부처와 협의할 사안"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넘겨왔다. 실제로 기업은행이 박창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을 때에는 담당 부처인 금융위가 반대하면서 좌초됐었다.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노동이사제' 공약을 폐기한 것이라 지적이 나온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해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개혁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자 인사가 사외이사로 가는 대신에 노조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단계를 축소했다. 한마디로 힘

을 뺀 것이다. 앞서 기존과 수은에서 시도한 것도 노동이사제가 아닌, 노조추천이사제였다.

금융노조는 반복해서 좌초된 노동이사제 논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권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다음 사외이사 임기가 돌아오는 것에 맞춰 또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선례에 따라 다음 시도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는 대체로 선거 전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라며 "기재부마저 거부한 마당에 향후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ji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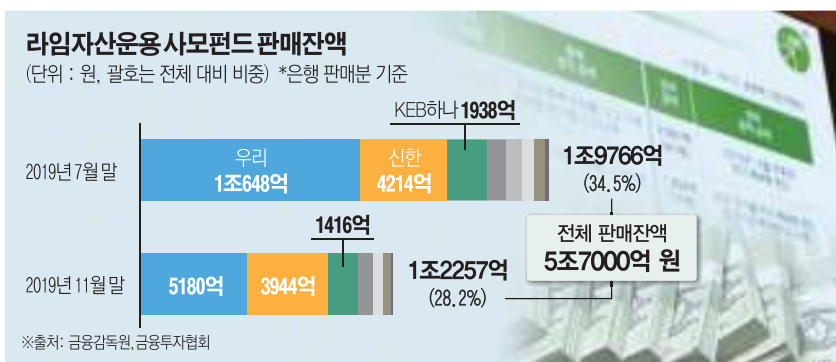
## 라임펀드 35% 은행 판매... 투자자 "원금손실 안내 없었다"

### 판매잔액 5.7兆 중 2兆 규모 피해자들 '불완전판매' 주장 은행 '공동대응반' 구성 추진

판매 중단으로 큰 피해를 받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이하 라임펀드) 3분의 1이 은행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원금손실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한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라임펀드의 판매잔액은 5조7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은행 판매분은 2조 원으로 34.5%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전체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비중(7.6%)을 5배 가까이 웃돈다.

은행별로 판매 잔액을 살펴보면 우리



은행이 1조6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421억 원, KEB하나은행 1938억 원, 부산은행 955억 원, KB국민은행 746억 원, NH농협은행 597억 원, 경남은행 535억 원, 기업은행 72억 원, 산업은행 61억 원 순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은행이 사모펀드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판매사 직원이 투자 성향을 '적극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법무법인과 손잡고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거짓 내용이나, 불확실한 사항과 관련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에 해당된다.

한 투자자는 "원금 손실이 전혀 없고 아무리 못해도 예금 이자는 나오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받았다"며 "프라이빗 뱅커(PB)가 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지 체크를 조작해서 (투자성향이) 적극 투자형으로 나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은행들은 억울해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운용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판매 과정은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현재 은행을 포함한 판매사들은 "공동대응반"을 꾸려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직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재산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 우리금융, 사내벤처 도입 조직 혁신문화 확산 물꼬

우리금융은 사내벤처 제도인 '우리 어드벤처'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우리 어드벤처는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모험심 강한 벤처 집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우리금융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운영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경영진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우리 어드벤처' 제도의 체계적 육성 계획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규모 자발적 혁신 조직인 '우리 어드벤처' 운영으로 스타트업의 장점인 신속한 실행력, 개방형 혁신, 도전하는 문화를 우리은행 등 전 그룹사에 확산할 예정이다.

최소 요건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빠르게 고객 반응을 측정해 다음 아이디어에 반영하는 린 스타트업(Lean Startup)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신사업 리스크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www.douzone.com

#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 Cloud Center → 자동분개 → 자동회계처리 엔진 → 자동입력 → 자동검증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임등기 알림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림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술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화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 앱 하나로 이체·결제·예매... 韓 '오픈뱅킹'보다 한 수 위

## ⊕ 유니온페이 '천하 삼분지계' 전략

황푸강은 중국 경제의 심장 상하이로 중단한다. 황푸강 동쪽에 자리 잡은 푸둥 경제특구는 1990년 경제특구 발표 전까지 농부가 돼지우리와 채소를 기르는 습지였다. 오늘날 동방명주탑과 현대식 초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모습은 '상전벽해'인 셈이다. 반면 중국의 과거는 황푸강 서쪽에 아로새겨져 있다. 1927년 영국이 지어 올린 상하이세관 건물을 비롯해 당시 영국이 지은 건물 앞에는 영국의 상징인 사자 석상이 줄지어 서 있다. 지금도 사자 석상은 황푸강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이 상하이 옛 도심의 반대편에 푸둥 경제특구를 보란 듯이 지어 올린 이유는 과거 짓밟힌 중국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 올린 모습을 영원히 보게 하려는 의도가 담겼을지 모를 일이다. 이투데이는 중국의 자존심인 상하이 푸둥 경제특구를 방문해 한국 지급결제의 미래를 전망했다.

◇간편결제 시장 '천하 삼분지계'를 피하는 유니온페이 = 중국은 넓은 영토와 한 박자 늦은 경제성장으로 플라스틱 카드 결제 체제가 굳기 전, 곧장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 시대로 향했다. 취재진은 지난달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카드결제 사업자 유니온페이의 간편결제 시장 대응 전략을 살폈다. 중국 내 간편결제 시장을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양분한 가운데 결제시장 '천하 삼분지계'를 펼치는 유니온페이의 전략은 간편결제 전쟁이 막 시작된 한국의 카드사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유니온페이 본사는 상하이 푸둥 신구에 있으며 동방명주탑을 기준으로 차로 15분 거리다. 상하이 지하철 9호선 양가오 미들 로드역 근처에 있는 본사는 전 세계 최대 결제사의 규모에 걸맞은 웅장한 유리 외벽 건물을 자랑했다. 유니온페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 약 80억 장의 카드를 발급했으며 177개 나라와 지역에서 이용됐다. 하지만, 자국 내 간편결제 시장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조사업체 입소스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유니온페이 결제시장 점유율은 18%로 조사됐다. 위챗페이(86.4%)와 알리페이(70.9%)가 양분한 시장을 유니온페이가 비집고 들어야 하는 형국이다.

취재진은 유니온페이와 함께 인근 쇼핑몰에서 다양한 차세대 간편결제를 경험했다. 먼저, 결제 시연을 위해 유니온페이 본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라야 플라자(Laya Plaza)'를 방문했다. 이곳은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종합 쇼핑몰 형태로 지하 식당가부터 카페와 키즈카페, 의류매장, 아동 용품매장, 각종 기념품 매장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근처에 호텔과 엑스포 전시관 등이 위치해 유동인구도 많은 편이었다. 유니온페이는 새 결제 방식을 시험할 때 이곳과 협업한다고 한다. 유니온페이가 QR 결제를 처음 시험한 곳도 이 쇼핑몰이라고 한다.

쇼핑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유니온페이와 라야 플라자가 함께 결제 판촉을 진행한다는 안내판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상대적으로 사용도가 높은 알리페이



### ★ 틈새 공략으로 차별화

기존 카드결제 이점 활용 NFC 보급 앞장  
쇼핑몰 제휴 등 타깃 마케팅 효과 극대화  
위챗·알리페이 고객층 대상 유인책 펼쳐

### ★ 통합 플랫폼 구축

중국 내 은행 계좌 연동 '킵패스' 앱 출시  
연락처만 알면 송금... 공과금 납부도 가능  
국내외서 사용 가능한 플랫폼 앱 추구



한 가게에 설치된 NFC 카드 리더기.

와 위챗페이 사용자가 유니온페이 결제를 사용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 또 공통 마케팅이 아닌 특정 지점을 대상으로 '타깃 마케팅'을 벌여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시도였다. 아울러 유니온페이는 기존 카드결제의 이점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보급에도 앞장섰다. 바로 NFC(근거리 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방식 결제다. 중국은 현재 QR 결제 방식이 대중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았지만 대부분 한국 카드사는 NFC 결제 방식을 차세대 결제법으로 보급 및 확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중국 내 카드결제에서 특이한 점은 NFC 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 보급이 완료돼 급거나 IC칩을 꽂는 방식의 결제가 아닌 카드를 '긁다대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점이었다. 취재진이 차(茶) 판매점에서 차를 구입한 뒤 한국에서 발급받은 BC유니온페이 카드를 건네자 카드 리더기에 곧장 갖다 대 결제를 하려 했다. NFC 결제기능이 없다는 점을 점원에게 설명하고 나서야 꽂는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했다.

현재 한국에서 발급 중인 카드는 대부분 NFC 기능이 빠져있다. 한국은 2014년 카드사 통합 NFC 결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NFC 단말기 보급 문제로 무산됐다. 이후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차세대 결제 방식 도입을 추진하면서 통합 결제방식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



중국 상하이 한 쇼핑몰 입구에 유니온페이 간편결제 연계 행사를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돼있다.



BC페이북앱에서 QR결제 화면을 띄운 모습. BC카드의 유니온페이와 연계해 페이북앱에서 중국 현지 QR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다. 반면 중국은 NFC 카드 단말기 보급이 이뤄져 NFC 결제가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계좌이체부터 주차료까지 '킵패스' 앱 하나로 = 유니온페이의 또 다른 전략은 사실상 모든 결제를 '킵패스'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깔기다. 2015년 12월 유니온페이가 선보인 킵패스는 중국 중앙은행 주도로 중국 내 은행 계좌를 연동해 킵패스 앱 하나로 모든 온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다. 이는 지난달 18일 한국에서 정식 시행된 '오픈뱅킹' 서비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서비스로도 읽힌다.

유니온페이 본사 직원은 취재진에게 직접 본인 킵패스 앱을 구동해 다양한 서비스를 시연했다. 연락처만 알면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고, 주차료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도 가능했다. 또 모든 쇼핑몰에서 킵패스 결제가 연동돼 간편하게 결제가 이뤄졌다. 심지어 영화 예매도 킵패스 앱에서 가능했다. 유니온페이 관계자는 "단순 결제 앱을 떠나서 국내외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앱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유니온페이의 간편결제 대응 전략은 한국 카드사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카카오페이의 확산과 한국 정부의 제로페이 장려 등 영향으로 카드사는 결제사업자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이에 카드사가 기존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보다는 특정 업종이나 쇼핑몰과 제휴해 자사의 간편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나 간편결제 앱의 통합 결제 플랫폼화를 시도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중국특별취재팀(상하이)·김범근 기자 nova@정용욱 기자 dragon@·곽찬신 기자 jinsan@



## “中, 카드 필요 없어 편리... 韓 간편결제 확산은 시간 문제”

### 이명호 BC카드 중국법인장

BC카드의 유니온페이와 함께 한국 결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BC카드는 2008년부터 중국 유니온페이와 협업해왔으며, 2015년에는 유니온페이인터내셔널이 한국에 진출해 양사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투데이는 BC카드 이명호 중국법인장을 상하이에서 만나 중국 내 BC카드 협업 상황과 전망을 들었다.

이 법인장은 인터뷰에 앞서 본사 입주 건물 1층에 위치한 스타벅스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그는 능숙한 중국어로 음료를 주문하고, 이어서 근처 편의점에서 평소 즐겨먹는 빵을 샀다. 동행한 유니온페이 중국 직원은 "웬만한 중국인보다 중국어가 훌륭하다, 처음 봤을 때 중국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결제는 'BC카드 페이북' 앱에서 QR결제로 몇 초 만에 이뤄졌다. 그는 결제 직후 "한국에 들어가면 실물카드 없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중국보다 더 불편하다"

### “유니온페이와 유커 대상 제휴 마케팅 국가간 거래 확대 대비 네트워크 구축”

며 웃어 보였다.

이 법인장은 인터뷰 처음부터 "한국 내 간편결제 확산은 시간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유니온페이와 협업 과정에 대해 "BC카드는 일찍이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유니온페이와 제휴를 시작하고, 이후 국내 최초로 유니온페이 브랜드 상품을 선보였다"며 "이후 한국과 중국 간 관광객 교류가 활발해져 중국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10여 년간 중국 관광객의 카드 사용에 대한 프로세스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중국법인의 역할에 대해선 "중국 유커를 대상으로 유니온페이와 함께 다양한 제휴 마케팅을 추진해 고객 결제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또한 양사가

함께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현지 기업들과 투자 제휴를 이끌어내는 등 중국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인장은 최근 한국 내 간편결제 시장 확대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BC카드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전사적으로 구축해 약화된 경영 환경을 극복할 것"이라며 "기존에 구축한 QR결제와 NFC표준, 생체인증, 토큰(가상카드) 등 디지털 플랫폼 외에도 전사적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BC카드가 결제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법인장은 "비씨카드가 앞으로 국가 간 거래가 더 많아질 것을 감안해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존에 국제 결제사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네트워크 제휴를 시도할 것"이라며 "또 해외 여행객에게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특별취재팀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 KB증권, 원화만으로 가능한 해외주식을 열다

## GLOBAL ONE MARKET

불편했던 해외주식을 국내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원화 거래로 더 편해진 해외주식,  
지금 글로벌 원마켓에서 만나세요

 원화 거래로  
편리하게!

 당일 거래로  
바로바로!

 환전 수수료  
평생 무료!

[글로벌 원마켓 서비스 신청 시]  
\*일부 통화 한정  
\*국민은행 실시간 매매기준율 환율적용  
(외환시장 마감시 익일 환율적용)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9-00378호(2019년1월31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글로벌원마켓]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기준 0.25%  
(매도시 0.0013% 제비용 별도) 일률적용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도해지시 환전수수료 발생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 미국, 홍콩, 중국A, 일본



# 전기 트럭·택시 어쩌나...7월 충전료 40% 오른다

코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연료비 비교

	코나 EV		코나 1.6 가솔린	코나 1.6 디젤
	현재	하반기부터		
연비	5.6km/kWh		12.8km/L	17.5km/L
연료비*	173원/kWh	240원/kWh	1643원/L	1482원/L
100km당 연료비	3079원	4272원	1만2815원	8447원
연간 연료비**	40만1193원	55만6641원	166만9794원	110만6444원

\*한국전력·서울 주유소 7월 평균가격 기준(오픈넷) \*\*연간 1만3000km 주행 기준(2017년 교통안전공단 승용차 평균주행거리 적용)



전국 지자체가 전기택시 보급 사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7월부터 전기차 충전료를 40% 올린다. 사진은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전기택시 운전기사가 충전기를 시연하는 모습. 뉴스시스

한전, 2022년까지 할인 폐지  
코나 연15만원 충전료 더 내야  
경유보다 싸지만 상용차 타격  
충전 사업자 고정비도 올라가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료가 40%가량 오를 전망이다. 승용차 운전자는 물론, 특히 1톤 트럭이나 택시 등 전기차를 선택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016년 3월 전기차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시작했다.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사업자의 충전을 대상으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충전시 내는 충전비)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한전은 이 제도를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뒤 없애기로 했다. 당장 올해 7월부터 기본요금 50%, 전력량요금은 30%로 할인 폭을 줄이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폭을 각각 25%와 10%까지 내린다. 2022년 7월부터는 모든 할인 제도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은 40%가량 오른다. 할인 폭이 축소돼 현재 1kWh 당 173원 수준인 전기료가 240원 남짓까지 인상되기 때문이다.

현대차 코나를 예로 들면, 현재 연간 40만 원 수준인 충전비는 55만 원으로 오른다. 경유차와 비교해 36% 수준이던 연료비가 50%로 늘어나는 셈이다.

장기적으로 할인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 충전요금은 이보다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8개의 민간 전기충전사업자들이 더는 할인받지 못하는 기본요금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기본요금은 충전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해 사업자로서 부담이다. 중소 충전 사업자를 중심으로 파산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이유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은 "현재 1만4000기 수준인 충전기 숫자가 반 토막 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요금 할인제도의 폐지가 전기차 이용자의 부담과 불편을 가중하고, 신규 전기차 구매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렴한 충전요금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주요한 이유로 꼽혔다.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 'EV 트렌드 코리아' 사무국의 지난해 조사 결과 응답자의 49%가 전기차 구매를 결심한 이유로 '저렴한 연료비'를 언급했다.

정부도 저렴한 연료비를 유인으로 활용해 전기차 보급률을 높여왔다. 지난해 현대차 코나 EV는 2018년 대비 21% 늘어난 1만3587대 판매될 정도로 전기차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전은 충전요금이 올라도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입장이지만, 전기차를 이미 보유한 운전자의 지출이 커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1톤 트럭 포터와 봉고의 전기차 모델을 연이어 출시했다. 포터는 지난달 출시 나온 만에 총 2555대가 판매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받았고, 1호 차 전달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참석했다.

두 차종이 200km가 넘는 주행거리를 확보했다지만, 장거리 운행이 많은 트럭의 특성상 운전자가 연료비에 큰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김필수 협회장은 "1톤 트럭 운전자들은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을 늘리고 있는 전기 택시 사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는 총 491대의 전기 택시가 운행 중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전기 택시 운전기사들은 저렴한 연료비 때문에 작은 차체와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며 "충전요금이 오르면 전기 택시를 운행할 이유가 사라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LPG 연료비를 할인하는 것처럼 택시 만이라도 전력 충전요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 두께 9.9mm '새 갤럭시 크롬북' CES 공개

삼성전자, 노트북·태블릿 결합  
내장펜·인텔 10세대 CPU 장착



삼성전자가 내장 펜을 장착한 초슬림 '갤럭시 크롬북'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에 지문인식 기능과 인텔 10세대 CPU 등을 적용해 크롬 OS 경험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0'에서 구글의 크롬 운영체제(OS)를 장착한 '갤럭시 크롬북(Galaxy Chromebook)'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컴퓨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투인원(2-in-1) 방식의 갤럭시 크롬북을 선보였다. 하나의 노트북으로 노트북과 태블릿 PC 두 가지 기기의 사용성을 즐길 수 있다.

갤럭시 크롬북은 3.9mm 슬림 베젤과 9.9mm 두께로 지금까지 출시된 삼성 크롬북 중 가장 얇다. 내장 펜 지원으로 사용자에게 간단하고 빠르게 매끄러운 크롬 OS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갤럭시 크롬북은 인텔 10세대 CPU 및 4K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13.3인치 4K UHD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3840 x 2160) 터치스크린

을 장착했으며, 무게는 1.04kg이다. 최대 16GB 램(RAM), 최대 1TB SSD, 100만 화소 전면카메라, 800만 화소 키보드 카메라 등의 사양을 갖췄다. 가격은 999.99달러부터 시작한다.

갤럭시 크롬북은 삼성의 갤럭시 컴퓨팅 비전을 바탕으로 최고 모바일 기능을 PC 폼팩터에 담아 생산성을 높인다. 구글 드라이브 기능을 활용해 파일은 안드로이드 기기 간에 자동으로 동기화된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에이수스(ASUS), 레노버 등도 이번 CES에서 크롬북을 선보였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 데스크톱 및 노트북 시장에서 윈도의 점유율은 83%, 크롬OS와 맥OS는 각각 7.5%로 전망된다. 크롬북의 판매량은 1870만 대로 1860만 대의 맥OS보다 조금 더 많이 판매될 것으로 기대돼 크롬OS는 윈도에 이어 PC 운영체제 2위 자리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구자열(왼쪽) LS그룹 회장이 6일 신임 임원과의 만찬에서 박현호 LS전선 이사(LSCI법인장)에게 책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제공 LS

## 구자열 회장 "모험가적 리더 돼야" 신임 임원에 '리더의 마음' 책 선물

LS그룹 승진자 14명과 만찬  
해외 사업 효율성 제고 당부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신임 임원들에게 '모험가적 리더'가 되라고 당부했다. 올해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LS그룹은 구 회장이 6일 LS 용산 타워에서 올해 승진한 신임 임원 14명과 만찬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만찬 자리에서 구 회장은 "LS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글로벌 시장에 있다"며 "여기 있는 신임 임원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열쇠를 앞장서 찾아내는 모험가적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이 신임 임원들에게 리더십을 언급한 것은 향후 LS그룹 전략과 연관 있다. 구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 중 첫 번째로 "글로벌 사업의 조직과 인력을 철저히

현대화하고 해외 사업의 운영 효율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올해 신규 임원 중에는 LS전선의 인도 법인장, 해저 글로벌 영업부부장, E1의 해외영업부부장 등 각 회사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들이 많다.

계열사들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LS전선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균형성장을 강조한 '2030 글로벌 비전'을 발표했다. LS산전은 조직 내 글로벌 사업본부 신설해 북미·유럽·동남아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날 만찬에서 구 회장은 임원들에게 책을 선물했다. 구 회장은 2013년 그룹 회장 취임 이후 매년 신임 임원에게 책을 선물하면서, 임원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평소 생각을 전달해 왔다. 올해 임원들에게 전달된 책은 △홍익사(주)인코칭 대표의 '리더의 마음'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 창립자의 '살아가는 힘'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품격' 등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화시스템, 사상 최대 실적  
작년 수주 2조2000억 돌파

한화시스템은 지난해 연간 수주액이 2조2000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2018년 실적의 167% 수준이며 당초 세웠던 목표의 150% 수준을 달성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한화시스템은 8월 5500억 원 규모의 항공기용 피아스별장비 사업(IFF Mode5)과 12월 4700억 원 규모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대형 수주 계약을 따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2220억 원 규모의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체계개발 다기능 레이더 시제공급 계약, 120억 원 규모의 초소형/경량 위성 등의 계약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630억 원 규모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KF-X) ATF용 TFC개발 사업을 계약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이노션, 유튜브 동물보호 캠페인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7일 '슈퍼 애니멀 퍼(Super Animal Fur)' 영상을 공개하며 스토리텔링 방식의 동물 보호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천연 모피 사용을 직접 비판하는 대신, 인조 모피 제품의 매력을 강조해 소비자의 인식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노션은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장광과 함께 전마를 포함해 '구름을 닮은 고양이 색모리'와 '꽃과 새의 하이브리드형 화화' 등 3마리의 슈퍼 애니멀을 만들었다.

최근 유튜브에 공개된 3분 23초 분량의 캠페인 영상은 슈퍼 애니멀 헌터가 색모리의 털을 구하는 과정을 그렸다. 총알 대신 꿀벌을 쏘는 '비건(Bee-Gun)'을 사용해 색모리를 구름옷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아트 스튜디오 디지페디(DIGIPEDI)가 영상 촬영에 참여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에어부산, 매주 스페셜데이  
부산-김포 편도 2만7100원

에어부산은 내륙노선인 부산-김포, 울산-김포 노선에 매주 특가 운임을 적용해 판매하는 '스페셜데이'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3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스페셜데이는 매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틀간 그다음 한 주간의 탑승 항공권에 대해 특별 할

인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기간에는 그다음 주인 13일부터 19일까지 탑승할 수 있는 특가항공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항공권 운임은 1인 편도 총액 기준 부산-김포 2만7100원, 울산-김포 2만5900원 등 최대 7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스페셜데이 할인을 이용하면 고속철도 정상가보다 최대 3만원 이상 저렴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기송 기자 kissong@



# 항공·해운업 연초부터 '날벼락'

미·이란 전문에 유가 상승세  
1달러 오르면 연 수백억 비용  
"1분기 실적개선 기대 사라져"  
등락 넘어 수급 불안정 걱정

미국·이란의 전문(戰雲)이 짙어지며 국제 유가가 상승기류를 타고 있어 산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특히 영업비용 중 유류비 비중이 상당한 항공·해운업계는 연초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부터 노재팬(NO JAPAN)과 홍콩 시위 사태 등에 따른 수요 하락으로 적자에 허덕인 항공업계는 올 1분기 개선 기대감을 다소 접는 분위기다. 또 수년간 경영난을 겪어왔던 해운업계는 올해 흑자전환 가능성에 유류 상승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6일(현지 시각)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거래가는 배럴당 22센트(0.4%) 상승한 63.2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일 이후 최고치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선물가격은 배럴당 31센트 상승한

68.91달러를 기록했으며, 브렌트유는 장중 70.74달러까지 치솟았다. 브렌트유가 7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이다.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이란 간 군사갈등 영향으로 중동 리스크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8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 전망에 힘이 실린다.

미국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은 "이라크 남부 유전으로 충돌이 확산되거나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이 심해지면 국제유가가 8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세계 원유 공급량 중 40%에 달하는 석유 수출국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봉쇄 조치 여부도 관건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단순히 국제유가 등락을 넘어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홍콩 등 인기노선 수요 약화, 항공화물 부진 등으로 줄줄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 조심스럽게 반등을 기대한 항공업계에 '유가 상승' 악재는 날벼락이다.

항공사 경영에서 유류비가 전체 영업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은 25~30%에 달한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유류 소비량이 3300만 배럴 수준이다. 유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370억~380억 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유가가 60

달러 대였던 지난 4분기와 비교하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앞으로도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될 경우, 유류비가 전체 운영비용의 약 27% (3조296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2018년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올들어 항공화물 수요 상승이 예상되면서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갑작스런 유가 상승 악재로 이 같은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유류비가 전체비용 중 약 30%를 차지하는 해운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SOx) 배출규제에 따른 운임 부담으로 최근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기 시작한 국내 해운업계에 유가 상승은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요금이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이 통제가 될 경우 물동량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인테리어 사업·온라인 거래 육성"

김내환 KCC글라스 초대 대표  
"핵심 역량 키워 수익 안정화"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창의적인 공간 디자인과 오감마케팅으로 고객 만족 경영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심비 소비형태로의 인식변화에 따라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 패턴을 데이터화 하고, 계층별로 분석해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등 오감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도록 OTO(Online To Offline) 활동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CC가 유리·흙씨 등 사업부를 분할에 세운 'KCC글라스'의 초대 대표이사를 맡은 김내환(사진) 부사장이 회사의 안정화를 위해 핵심 사업의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KCC에 따르면 김 대표는 사내 인터뷰를 통해 "불확실한 경영환경일 수록 사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부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디자인 능력, 탄탄한 영업망을 활용해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경영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인테리어 사업부에서는 '고객 만족 경영'을 추구하고자 선언했다. 그는 "인테리어 사업은 고객의 개별적인 취향이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산업이므로, 고객의 니즈에 발

KCC글라스의 경영 방향을 공표한 김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갖자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자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합작해 KCC글라스의 경영 목표를 이루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나가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LS전선 직원이 북당진-고덕 구간 고압직류송전(HVDC)케이블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LS전선

## 국내 전선업계 수주 신기록 쓴다

LS전선·대한전선 작년 실적개선  
해저·초고압 케이블 기술 앞세워  
亞·중동 넘어 유럽·중남미 공략

국내 전선업체들이 잇따른 공급계약 체결로 수주액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저케이블 등 고부가가치 제품 분야에서 경쟁자들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선업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프라 확충으로 전선 수요가 높은 국가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7일 전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LS전선, 대한전선의 수주총액은 전년도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LS전선의 작년 3분기 누적 수주총액(국내외 종속기업 포함)은 6조7029억 원이다. 신기록을 달성했던 2018년(7조1849억 원) 수주총액의 약 93%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전력과 1086억 원의 HVDC(고압직류송전)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전선도 상승세에 올라섰다. 대한전선의 지난해 3분기 누계 수주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가량 증가했다. 작년 10월에는 미국에서만 1000억 원이 넘는 수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증가 폭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사 수주액이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기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LS전선은 2007년 국내 최초로 해저케이블을 개발한 이후 유럽, 미국 등에 제품을 공급했다. 해저케이블은 전선 분야 최고 기술력



구자엽 LS전선 회장 나형균 대한전선 사장

이 집약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다. 대한전선은 500kV(킬로볼트) 지중 초고압 케이블 생산 및 운영능력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LS전선, 대한전선은 지속적인 해외시장 공략을 통해 수주액 상승세를 이어간다. LS전선은 3일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아시아·중동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거점을 현재 23개에서 40여 개로 늘린다. 구자엽 LS전선 회장은 "변화가 성공하려면 능동적, 자율적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선은 올해 해외법인의 성장 고도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대한전선은 지난해 설립한 쿠웨이트 광케이블 생산법인을 포함해 해외에 4곳의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나형균 대한전선 사장은 "연내에 쿠웨이트 법인의 매출 실현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혁신과 성장을 위해 핵심 키워드로 삼고, 성과 창출 사업 기반을 마련해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무대 위에 피어난 대서사시

기억하나요, 그날의 우리

# 여명의 눈동자

MUSICAL

타임세일  
**40%할인**

《여명의눈동자》를 아시나요

공연기간 - 1월 8일까지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문의 02-764-9102  
\*공연료는정자출판사(주)에서안내

2020.1.23-2.27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KCC COMPANY 후원



# “지지고 볶고 직접 써보세요”... ‘요리교실’ 여는 주방업계

### 락앤락, 유명셰프 초청 설맞이 한식 주제 쿠킹클래스 쿠첸, 예비부부 대상 이벤트... 프라이팬 등 제품 증정 휴롬도 아이와 함께하는 무료 요리체험 진행 큰 호응

최근 주방업계의 화두는 ‘쿠킹클래스’다. 업체들은 유명강사를 초빙하고 소비자들이 집에서 편하게 만들면서도 근사한 요리가 가능한 쿠킹클래스를 앞다퉈 열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고, 고객 접점을 늘리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쿠첸, 휴롬 등 주방가전 업체에 더해 최근 밀폐용기로 유명한 락앤락까지 쿠킹클래스 이벤트에 가세했다. 업체들이 진행하는 쿠킹클래스는 수익 사업은 아니다. 그런데도 너나 할 것 없이 쿠킹클래스를 여는 배경에는 고객들이 제품을 직접 써보게 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전날 락앤락은 이달에만 세 차례의 쿠킹

클래스를 연다고 밝혔다. 락앤락은 푸드스타일리스트이자 요리사인 김희은 셰프와 라이프스타일 매장인 플레이스엘엘에서 쿠킹클래스를 진행한다. 구정을 앞둔 만큼 ‘내 생애 첫 한식 요리’를 주제로 한경도식 원산지채와 모듬전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락앤락은 지난해 11월 쿠킹클래스를 시작해 11월 플레이스엘엘 안산점에서 1회, 12월 안산점, 송파점회에서 총 2회 진행했다. 참가비는 5000원이며 회당 5명을 추천 선발해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락앤락 관계자는 “플레이스엘엘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작해 점점 확대할 예정”이라며 “플레이스엘엘이 지역 내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락앤락의 쿠킹클래스 ‘클래스엘엘’에 참여한 고객들이 요리를 배우고 있다. 사진제공 락앤락

전날 쿠첸도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쿠킹클래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쿠첸 체험센터 정자점과 서래마을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예비부부 4쌍을 선정해 무료로 진행된다. 쿠킹클래스 뒤에는 쿠첸의 프라이팬, 편수, 양수 냄비 등 1세트씩을 증정할 계획이다.

쿠첸은 2018년부터 쿠첸이 운영하는 체험센터에서 쿠킹클래스를 열고 있다. 현재 1호 삼성점, 2호 정자점, 3호 서래마을점이 운영 중이다. 쿠첸 관계자는 “2018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전기레인지 제품을 알리려는 목적이 컸지만, 이후부터는 제품 홍보를 넘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액기로 유명한 휴롬은 지난해 4차례의 키즈 쿠킹 클래스를 진행했다. 아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참가비는 전액 무료였다. 한 회차에 아이와 부모 6쌍씩, 12명이 참여했다. 프라이팬, 냄비 같은 제품 라인업이 없는 휴롬은 제품 홍보에 집중하기보다 원액기의 재료가 되는 채소, 과일을 아이들이 친숙해질 수 있도록 요리하는 시간을 구성했다. 휴롬 원액기로 만든 과일 주스를 마신 뒤 과일을 이용한 경단, 케이크 등을 만드는 식이다. 휴롬 관계자는 “1회차 때보다 뒤로 갈수록 부모님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마감도 빨리 됐다”고 밝혔다.

해피콜도 지난해 3차례의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 해피콜은 양면팬이나 불팬더 등 신제품 출시나 소비자 서포터즈 선정을 기념해 쿠킹클래스 이벤트를 열고 있다. 휴롬처럼 참가비는 무료다. 해피콜은 올해 4기 공식 서포터즈를 모집하면서 쿠킹클래스를 열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네이버, AI로 수준 미달 기사 걸러낸다

네이버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편을 진행한다. 네이버 포털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개편된 뉴스 검색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7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말부터 뉴스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해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 검색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로감을 해소시키고 기사 내용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이용자들이 포털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어떠한 내용을 상위권에 노출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있다.

우선 아웃링크 기사의 경우 후순위로 밀리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용자들이 기사 클릭시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과도한 온라인 광고창이 있을 경우 뉴스 배열이 뒤로 밀리게 된다. 또 기존 기사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네이버 콘텐츠 등에 이미 나와있

### 뉴스 검색 알고리즘 개선 언론사 홈페이지 과도한 광고 기존 기사와 유사할 경우 뉴스 배열 후순위로 밀려

는 정도를 배긴 기사도 후순위로 밀려난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이슈와 관련한 키워드가 포함되었지만 기사 내용이 해당 이슈와 다를 경우에도 검색시 뒤에 표출된다.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활용한 기사 작성도 제외한다.

뉴스 검색 결과 상단에는 새로운 내용을 작성한 기사가 나타난다. 언론사 단독보도, 최초 보도 등이 가장 먼저 표출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개편이 어뷰징 기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예인의 이름이 실검에 나타나면 이를 활

용한 기사를 작성하며, 해당 이슈와 무관한 과거사까지 기사로 나오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댓글, 신상공개 등 2차 피해까지 뒤따를 수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 개편이 요구돼 왔다.

특히 뉴스 서비스의 개편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 내용을 담은 기사 콘텐츠도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 서비스를 개편하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포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수면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른 기사 댓글 문제 등을 해결하고 본연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라며 “네이버를 선두로 다른 포털까지 개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터넷 환경은 올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정부, ICT 인재양성 올해 786억 투입

### 대학 연구센터 설립 333억 등 2023년까지 6493명 양성

정부가 올해 정보통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데 786억 원을 투입한다. 2023년까지 관련 분야 핵심인재 6493명을 양성한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ICT 인재 양성 관련 5개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향후 4년간 핵심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학ICT 연구센터(333억 원) △ICT 명품인재 양성(75억 원) △ICT 핵심인재 4.0 (13억 7000만 원) △그랜드 ICT 연구센터(90억 원)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228억 원) 등이 세부사업이다.

올해 ICT인재육성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39%(216억원) 증가했다. 이를 통해 2020년 1080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누적 6493명의 인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학ICT연구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신규로 15개의 연구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새로 선정된 센터는 혁신

도약형 연구과제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센터가 참여교수나 과제 규모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규 센터에 대한 최대 지원기간도 6년에서 8년으로, 학생 창의자율과제도 3개에서 5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해외에서 인턴십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MS 아시아연구소 등 글로벌 ICT 기업이 국내 대학과 협력해 인턴십 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ICT 핵심인재 4.0 사업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연구인력을 양성을 지원한다.

특히 이 사업에서 기업은 연구를 위한 코칭 역할을 하고, 학생은 기업의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산업 현장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분야, 신청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2월부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공고될 예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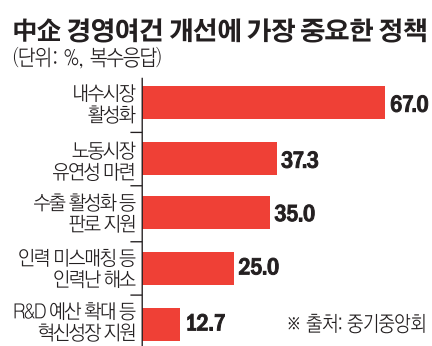
## 중소 10곳중 7곳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 절실”

### 중기중앙회, 경영환경 조사 37.3% “노동시간 유연성 필요” 경영환경 9%만 “좋아질 것”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가장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경영환경 및 2020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가장 중시해야 할 정책으로 67.0%가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을 꼽았다. 그 뒤를 ‘노동시간 유연성 마련’(37.3%),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등 판로 지원’(35.0%)이 이었다. 올해의 경영환경 전망으로는 절반 이상



(57.0%)의 기업은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동시에 ‘더 악화할 것이다’는 기업이 33.7%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업(9.3%)보다 높게 나타났다.

악화 원인으로서는 국내 사유는 ‘내수부진 지속’(77.2%)이, 대외 사유로는 ‘전 세계적 성장률 둔화’(54.5%)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핵심 경영전략으로 ‘신규거래처·신규판로 발굴’(59.7%)과

함께 ‘사업운영자금의 안정적 확보’(36.0%), ‘경영환경 악화 대비 리스크 관리 강화’(34.3%)를 응답했다.

또한 올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외부요인(복수응답)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심리 회복 여부(55.7%) △핵심사업의 시장 상황(46.3%) △모기업-거래처의 사업 업황 변동(28.0%)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28.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불안정한 대외경제 여건,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 내수부진 장기화 등 대내외 경영 불안요인은 쉽게 개선되지 않겠지만, 최저임금 상승폭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기간 부여 등 일부 정책 변화는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기대할 만한 요인”이라며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 은누리상품권 구매한다 월 30만→70만 원 상향 (5% 할인구매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28일까지 종이 은누리상품권 구매한다고 7일 밝혔다.

5% 할인구매 기준으로 기존 월 30만원에서 70만 원으로 한도가 높아진다. 종이 은누리상품권의 구입처는 수협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곳이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

모바일 은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커진다. 모바일 은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할인율이 유지된다.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높아진다. 모바일 은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사의 4월 총선 출마할 듯

이상직(사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7일 중진공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이날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 취임한 뒤 1년10개월 만이다. 이 이사장은 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번 사의는 차기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이사장은 최근 예전 지역구인 전주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출마가 확실시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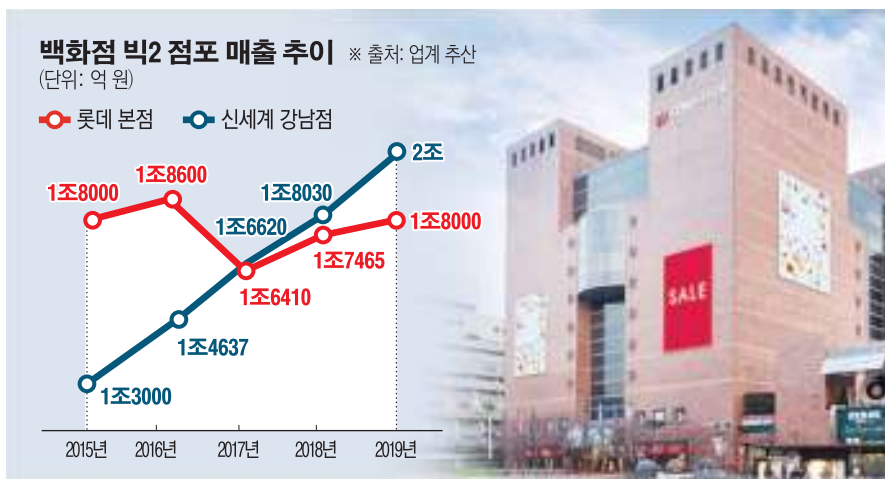
퇴임식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 신세계 강남점, 첫 '매출 2兆'... 명품·면세점이 쌍끌이

증축·리뉴얼 통해 성장 발판  
호텔과 시너지 외국인 늘고  
밀레니얼 명품 매출 49% ↑  
롯데백 본점 1.8兆 2위에  
2022년까지 리뉴얼 반격 준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매출 2조 시대를 열었다. 백화점 점포 기준으로는 국내 최다다. 국내 최초 1조 점포 기록을 썼던 롯데백화점 본점은 작년 매출 1조8000억 원을 기록해 3년 연속 2위에 머물렀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이 지난 2010년 개점한 지 10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해 '업계 최단 기간 1조 점포'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이어 '국내 첫 2조 점포'라는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신세계 강남점이 매출 '2조 클럽'에 가입함에 따라 이세탄백화점(일본 신주쿠)과 라파에트(프랑스 파리), 해롯(영국 런던) 등 세계적인 백화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백화점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신세계 강남점은 2016년 신관 증축 및 전관 리뉴얼을 통해 영업면적을 기존 1만 6800여 평(약 5만5500㎡)에서 2만6200평(약 8만6500㎡)으로 늘리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증축·리뉴얼 전인 2015년 1조3000억 원이었던 매출은 리뉴얼 오픈 3년 차인 2018년 1조 8000억 원까지 급성장했고 마침내 지난해 '연 매출 2조 원'의 벽을 깼다.

면세점 및 호텔과의 시너지를 통해 외국인 고객이 늘어난 점이 매출 호조의 요인이 됐다. 면세점 오픈 직전인 2018년 6월과 면세점을 품은 이후인 지난해 12월 신세계 강남점의 외국인 고객 현황을 비교해

보면 매출은 90% 이상 신장했고 구매고객 수는 50% 증가했다.

해의 명품 유치 전략도 주요했다. 신세계 강남점의 명품 매출 비중은 신세계백화점의 전체 평균 매출 비중의 4배를 뛰어넘는다. 2018년 발렌티노를 시작으로 보테가 베네타와 루이비통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잇따라 강남점에 팝업스토어를 선보였다. 특히 명품에 대한 젊은 고객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강남점의 2030 명품 매출 신장률은 49.2%에 달했다.

라이벌 롯데백화점 본점은 주춤하는 모양새다. 2015년 1조8000억 원의 매출을 거둬 5000억 원이 앞섰던 롯데백화점 본점은 이듬해에 성장률이 13%에 육박한 신세계 강남점이 1위 자리를 위협했다.

2017년에는 1조6410억 원을 기록해 리뉴얼 효과를 본 신세계 강남점(1조6620억 원)을 내줬으며 지난해 역시 롯데 본점의 매출은 약 1조8000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선두 자리는 3년 연속 신세계 강남점에 내주게 됐다.

롯데 본점의 성장세가 주춤한 이유로는 명품 카테고리의 성장세가 경쟁사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롯데백화점의 명품 매출 증가율은 지난 2017년 5.5%에서 2018년 18.5% 상승했고,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이에 비해 신세계백화점의 지난해 고가 럭셔리 상품 매출은 전년 대비 31.3%나 증가하며 롯데를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롯데백화점 역시 해의 명품을 미래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낙점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롯데백화점은 2018년 말부터 본점 리뉴얼에 돌입해 2022년 프리미엄 점포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롯데는 백화점 1층에 명품을 유치해 고객 몰이에 나섰다. 2층과 5층 역시 여성용 명품 매장, 남성용 명품 매장으로 꾸미는 등 프리미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VIP고객 등급도 개편했다. 연간 구매 금액 1억 원 이상의 'LENITH', 6000만 원 이상 'MVG-Prestige', 4000만 원 이상 'MVG-Crown', 1800만 원 이상 'MVG-Ace'에 이어 800만 원 이상의 VIP+와 400만 원 이상의 VIP 등급을 신설했다. VIP 등급을 낮춰 충성 고객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2022년까지 본점 리뉴얼을 통해 고급화에 나서고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마케팅과 체험형 마케팅도 강화해 신세계 강남점과 선의의 경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신의 물방울'에 빠진 편의점

O2O 예약 통해 재고 문제 해결  
3800만 원 '로마네 콩티' 예판

저가 와인을 주로 팔던 편의점들이 고급 와인 판매에 속속 나서고 있다. 와인 대중화에 따라 고객들의 취향이 다양해진 데 따른 것이다. 와인 재고 확보 문제를 앓을 뚱한 O2O(Online to Offline) 예약 서비스로 극복하면서 편의점의 와인 사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24는 와인 큐레이션 업체 '와인 포인트'와 함께 와인 O2O 서비스 매장을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 소재 740여 곳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와인포인트 앱에 접속해 와인 예약 후 수령 가능한 이마트24 매장을 선택하면 된다.

이마트24는 기존 주류 특화 매장을 통해 대부분 1만~3만원대 저렴한 80여 품목의 와인을 취급해왔다. 하지만 와인포인트와 제휴를 통해 세계 유명 산지의 다양한 중고가 와인을 팔수 있게 됐다.

실제 이마트24는 와인포인트와의 O2O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7일부터 '샤도 몽페라 루즈' 240병을 1만9000원에 특가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와인은 만화 '신의 물방울'에서 남주 주인공이 권의 '보헤미안 랩소디'에 비유한 와인으로 시중에

서 10만 원대에 판매되던 와인이다. 편의점 와인 고급화에 불을 당긴 업체는 GS25다. 이 회사는 지난해 4월 프랑스 보르도산 5대 샤도인 '샤도 마고' 2000년 빈티지를 99만 원에 20병 한정판으로 내놔 30분 만에 완판시켰다. 여세를 몰아 지난달 16일부터는 '신의 물방울'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프랑스 부르고뉴산 와인 '로마네 콩티 2013'을 3800만 원에 예약 판매하고 있다.

GS25가 고급 와인 판매에 적극 뛰어 들 수 있던 배경에도 모바일 앱 서비스 도입이 꼽힌다. 이 회사는 지난달 '와인25'라는 당일 와인 예약 서비스를 론칭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280여 점포에서 테스트해 오다가 이달부터는 송파·서초구 소재 600여 점포로 확대하기로 했다.

편의점들이 최근 와인에 공들이는 이유는 소비량이 늘면서 매출 역시 급상승한 이유가 크다. 특히 술은 온라인에서 구입이 불가능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만큼 내점 전략으로도 효과적이다.

손아름 이마트24 일반식품파트 주류 바이어는 "와인 O2O 서비스 확대에 따라 편의점에서 다양한 와인을 찾는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잠실점 9일 새 단장 오픈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잠실점 1층에 위치한 1인 방송 장비 매장 및 2층 주방가구 매장 모습.

박미선 기자 only@

## 매장서 집처럼 편안하게 프리미엄 가전 체험

이동우 대표 "기존 잠실점 대비 평당 매출 두 배 목표"

오프라인 유통 시장의 침체로 가전양판점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롯데하이마트가 기존 잠실점을 '메가스토어'로 새단장에 9일 오픈한다.

이동우 롯데하이마트 대표는 7일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 웰빙센터에서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잠실점 오픈' 기자회견을 열고 "매장 1층, 가장 좋은 공간에 고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웨렌시아존'을 구성했다. 이는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시도지만, 그런 시도를 안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 새롭게 시도한 것"이라며 다른 오프라인 유통 매장과의 차별화하기 위한 고민을 풀어냈다.

전체 면적 7431㎡(약 2248평), 국내 최대 규모로 선보이는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는 기존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상품, 매장 구성, 서비스를 총망라했다.

2개 층으로 이뤄진 롯데하이마트 메가스토어 잠실점의 1층은 모바일, 스마트 모빌리티(이동수단),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정보기술(IT)가전을 체험할 수 있게 구성했다. e-스포츠 경기장, 1인 미디어존, 프리미엄 오디오 청음실 등도 만날 수 있다. 2층은 다양한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전, 주방가전, 생활가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꾸며 놓았다. 메가스토어 2층은 국내외 주요 브랜드의 프리미엄 전문관, 주방·생

활가전 전문관으로 꾸몄다.

메가스토어 잠실점 이성재 지점장은 "워라벨(일과 삶의 조화), 나심비(나의 심리적 만족 비율) 등 최근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프리미엄급 여가와 취미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들로 매장을 꾸몄다"고 말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매장을 선보이는 만큼 매출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기존 잠실점 평당 매출은 240만 원이었는데 이번 메가스토어는 평당 매출 440만 원을 내다본다"고 밝혔다.

롯데하이마트는 올해 메가스토어를 10개점 개점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온라인 매출은 계속 성장 중이다. 2021년에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다"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이번 설엔 '이색 과일 선물세트'

신세계백화점은 제주 지역의 엄선된 만감류, 달콤한 사인머스켓, 열대 과일의 여왕 애플망고 등으로 구성된 이색 과일 선물세트를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식품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이색 과일 선물세트 대표 상품으로는 사인머스켓 세트 15만 원, 제주 향기 세트(한라봉) 9만 원, 사인머스켓&애플망고 세트 14만5000원, GAP 인증 한라봉 세트 8만 원 등이 있다. 뉴스이

## 신세계푸드, 케어푸드 '이지밸런스' 론칭

노인·환자 대상 연하식 5종

신세계푸드가 2조원대로 성장이 예상되는 케어푸드 시장에 진출한다. 신세계푸드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이지밸런스(EASY BALANCE)'를 론칭하고 연하식 5종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케어푸드란 건강상의 이유로 맞춤형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식품이다. 노인과 환자가 주 타깃으로, 일시적으로 신체기능이 떨어지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산모, 어린이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신세계푸드가 선보이는 연하식은 음식을 삼키는 것이 곤란한 이들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음식을 씹는 것이 어려운 연하식과 차별화된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이지밸런스 '소불고기 무스', '닭고기 무스', '가자미구이 무스', '동파육 무스', '애호박볶음 무스' 5종이다. 씹을 필요 없이 혀로 가볍게 으개



취할 수 있을 정도로 경도, 점도를 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용기째 가열 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신세계푸드는 첫 출시한 이지밸런스 연하식 5종 외에 추가로 제품을 개발해 요양원, 대형병원 등 B2B(기업간 거래) 시장을 공략한 후 향후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시장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발행어음 시장 '3강 체제' 굳어지나

한투·NH투자·KB證, 작년 말 기준 발행어음 잔고 13兆 육박  
신한금투, 라임 '폰지사기' 의혹 연루로 연내 인가 가능성 희박  
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은 단기금융 사업권 없어 진출 불투명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등 발행어음(단기금융) 인가를 받은 초대형 투자은행(IB) 3사의 발행어음 잔고가 지난해 12조 원을 돌파했다. 연간 목표치를 추월하는 발행어음 성과로 3강 구도를 굳혀 가고 있지만 후발주자인 '발행어음 4호 사업자'의 운곽은 희미한 상황이다. 지난해 자본 확충으로 단기금융업 자격 요건을 갖춘 신한금융투자가 4호 물망에 올랐지만 라임자산운용의 '폰지사기' 의혹에 연루되면서 연내 인가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발행어음 1호'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 발행어음 잔액이 약 6조7000억

원(원화·외화 합산)으로 연간 목표치(6조 원)보다 7000억 원가량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2호 증권사'인 NH투자증권도 발행어음 잔고가 약 4조8000억 원으로 목표치인 4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5월 인가로 3강 구도의 한 축이 된 KB증권 역시 약 2조1050억 원을 달성하며 목표치(2조 원)를 추월했다.

이에 따라 3사의 지난해 발행어음 잔고는 약 12조8850억 원으로 13조 원 돌파도 목전에 둔 상태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한국투자증권(3조7000억 원), NH투자증권(1조7000억 원)의 연간 발행어음 잔고 총합이 5조4000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 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어음 잔고 추이

	2018년	2019년
한국투자증권	3조7000억 원	6조7000억 원
NH투자증권	1조7000억 원	4조8000억 원
KB증권		2조1500억 원
<b>총</b>	<b>5조 4000억 원</b>	<b>12조 9300억 원</b>

※연말 기준, 원화·외화 합산  
※KB증권 2019년 5월 단기금융업 인가  
※출처: 각 사 취합

지난해 발행어음 규모가 2배 이상 커진 셈이다.

2016년 8월 초대형 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되면서 초대형 IB 시대가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조건을 갖춘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 업체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또 초대형 IB로 지정된 경우 자기자본의 2배까지 단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어음 신청 권한

을 줬다. 발행어음 사업권을 가지면 경쟁사 대비 자금 조달 능력이 비약적으로 커진다.

최근 4호 사업자로 가장 유력한 곳은 신한금투였다. 신한금투는 지난해 7월 6600억 원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자기자본 규모 4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초대형 IB 인가를 받고 발행어음 사업권까지 얻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혐의에 신한금투도 가담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의 제재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이뤄지면 초대형 IB로 지정된다 해도 발행어음 인가는 요원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신한금투는 이와 별개로 발행어음 시장 진출 시기를 조울 중이라는 설명이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3사가 먼저 진출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 구도에서 발행어음으로 큰 이익을 얻긴 어

렵다고 본다"며 "금융당국의 조사와는 별개로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하기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초대형 IB임에도 단기금융 사업권이 없는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도 발행어음 진출이 힘든 상황이다.

국내 자기자본 규모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 절차에 착수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공정위는 내달께 전원회의를 거치고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와 제재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행어음 인가 절차를 미뤄둘 수밖에 없다"며 "결과가 좋다면 절차를 서두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의 경우 2018년 4월 110조 원 가량의 배당 사고로 내년 1월 26일까지 신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어 연내 발행어음 인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증시 낙관론에 투자자 예탁금 30兆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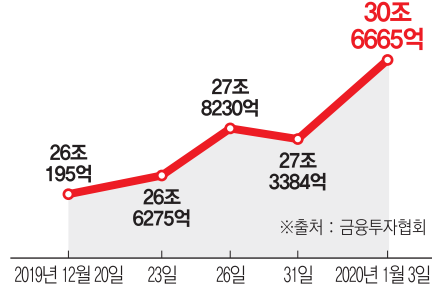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美·中 1단계 합의로 투심 살아나  
'30조6000억' 21개월 만에 최대

증시 진입을 기다리는 투자자 예탁금이 3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증시 반등세와 함께 낙관론이 커지면서 증시 대기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30조6665억 원으로 2018년 4월 24일(30조7280억 원)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3조3281억 원 늘어난 수치다.

투자자 예탁금은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들에 일시적으로 맡겨 놓은 돈으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증시에

국내 증시 투자자 예탁금 추이  
(단위: 원, 정내파생상품 거래예수금 제외)



투입될 수 있는 대기자금으로 통한다.

투자자 예탁금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해 크리스마스(12월 25일) 이후부터다. 24조~26조 원대로 유지된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해 12월 26일 처음 27조 원을 돌파했다. 이어 곧바로 28조 원을 넘어선 뒤 새해 들어 3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스피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투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증시 낙관론이 힘을 받으면서 투자심리를 되살아나고 있다.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난해 미국과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크게 상승한 점에서 신흥국과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평가 부담은 높지 않다"며 "특히 이익 증가율을 고려한 밸류에이션 지표인 페그(PEG·주가수익비율을 향후 2년간 주당 순이익 예상 증가율로 나눈 비율)로 분석하면 한국은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짚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 "수익률 부진·소득공제 혜택 실효성 떨어져..."

# 코스닥벤처펀드, 1년 새 4300억 유출

코스닥벤처펀드가 출시 2년을 맞았지만 모험자본 공급과 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공제 혜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국내 설정된 코스닥벤처펀드는 총 61개다. 이 중 사모펀드가 49개로 공모펀드(12개)보다 4배 이상 많다. 설정액은 사모펀드와 공모펀드가 2438억 원, 2439억 원을 기록 중이다. 최근 1년간 각각 318억 원, 1212억 원이 유출됐다.

2018년 4월 출시된 코스닥벤처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50% 이상을 코스닥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개

인투자자는 해당 펀드에 투자한 후 일정 기간 보유할 경우 투자금액의 10%(최대한도 300만 원)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익률 부진 등의 이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공제 혜택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장기보유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보다 수익률 개선에 따른 이익 실현에 무게를 둔 투자자가 많기 때문이다. 상장 이후 벤처기업에 신규 지정됐어도 효과를 보지 못해 주가가 하락한 곳도 있었다. 지스마트글로벌(-83.86%), 한류 AI센터(-81.40%), SG(79.37%), 내츨엔도텍(-73.23%), 헬릭스미스(-65.86%) 등이 크게 하락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치과계의 적폐를 파헤치는  
치과의사 K의 외로운 전쟁

본격 치과 담합 리얼 스릴러

# 임플란트 전쟁



[본문 내용 중...]  
무엇보다 앞으로 협회에서 정한 수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벌어진 얼굴을 한 갸마른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하고 있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던 그는 늦게 들어온 광욱을 잠깐 쳐다봤다가 다시 아래쪽으로 시선을 내렸다. "앞으로 직원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환자들이 보기에 가깝고 느끼고 수 있을 만한 표현도 전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협회에서 정한 수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민원 건 취소해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는 이미 숙이고 있던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인사했다.

고광욱 지음



## 드래곤시티호텔 등 '자산재평가'에 공모리츠 설립 추진 서부T&D, 재무개선 나선다

차입금 작년 3분기 기준 7597억  
이자비용에 당기순익 적자 지속

대표적인 자산주로 꼽히는 서부T&D가 자산재평가, 공모리츠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재무개선에 나선다. 서부T&D는 그동안 보유 토지에 호텔, 쇼핑몰 등을 개발하면서 수익을 냈지만 많은 차입금과 이로 인한 금융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서부T&D는 지난해 연말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과 신정 서부트러더미널, 인천 연수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스퀘어원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746억 원 차익을 봤다고 공시했다. 재평가차익은 자산총액 대비 4.36% 수준이다. 이를 통해 투자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합한 장부가액은 기존 1조987억 원 규모에서 1조1733억 원으로 늘어났다.

회사가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건 2016년 6월, 지난해 2월 이후 세 번째다. 드래곤시티호텔이 완공되기 전이었던 2016년에는 신정동과 용산 토지만 대상으로 했고, 지난해 2월에는 스퀘어원과 드래곤시티 호텔 등 완공 건물까지 합해 재평가를 실시했다. 연이은 자산재평가는 재무개선을 위한 조치다. 자산재평가를 하면 재무제표에서 평가 차익과 이연법인세가 각각 자본과 부채 계정에 반영되는데, 일반적으로 자본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아진다. 재평가차익이 미실현이익에 해당돼 배당가능재원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재평가에선 2600억 원가량의 차익을 봤는데, 이 결과 부채비율을 220%대에서 160%대로 낮출 수 있었다.

재무개선책 일환으로 공모리츠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신한리츠운용과 리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연내 공모리츠를 설립한다는 계획은 확실하지만 어떤 자산을 담을 지는 논의 중인 상태"라며 "리츠를 통해 유입되는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T&D는 대표적인 알파 자산주로 분류돼 왔지만, 큰 규모의 차입금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약점으로 꼽혔다. 총 차입금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7597억 원 수준으로, 보유 중인 투자부동산 자산(7217억 원)보다 많은 액수다. 부채비율도 170%로 전년 말(165.9%)보다 소폭 높아진 상태다. 지속적으로 나가는 이자비용으로 인해 당기순익도 줄곧 적자 상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매출액 913억 원에 56억 원의 영업이익을 봤지만 226억 원에 달하는 이자비용 영향으로 당기순손실 150억 원을 넘겼다. 2018년에도 10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이자비용 293억 원의 영향이 컸다. 노우리 기자 we1228@

# 현금성자산 3분기 만에 절반 '뚝'

## 상장사 재무 분석

### 안랩

안랩 재무현황  
(단위: 억 원, 연결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353억 원	152억 원
2018년	2019년 3분기	
매출채권	206억 원	217억 원
매입채무	192억 원	138억 원
재고자산	16억 원	26억 원
당기순이익	169억 원	139억 원

※출처: 금감원 전자공시

코스닥 상장사 안랩의 현금성자산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안랩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52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57.03% 줄었다.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남아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36.01% 감소한 수치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은 순현금흐름의 증감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영업과 투자, 재무활동 등에서의 현금 유출입 여부가 중요하다. 안랩의 경우 우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141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 3분기와 비교하면 100억 원 이상 감소한 수치다. 매출채권·재고자산은 늘고 매입채무는 줄어든 영향이다.

안랩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은 각각 217억 원, 2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들어 5.42%, 62.23% 증가했다. 반면 매입채무

매입채무 28%↓·순익 감소 영향  
투자활동 확대에 현금 유출 증가  
작년 3분기 현금성자산 152억  
순현금흐름 마이너스 전환

는 138억 원으로 28.13% 감소해 그만큼 현금이 줄었다.

순이익이 감소한 부분도 영업활동 현금흐름 증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안랩의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42% 감소한 139억 원이다.

투자활동에선 264억 원의 마이너스 흐름을 기록했다.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으로 1400억 원대의 현금 유출이 있었던 데 반해 같은 자산의 처분으로 얻은 현금 흐름은 1260억 원 규모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타유동금융자산에는 정기예금과 발행어음, 금융채, 수익증권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투자활동에서 벌어진 현금 유출은 투자 활동을 확대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 향후 투자 자산의 가치 평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재무활동에선 규모가 크지 않지만 배당금 총액의 확대로 인해 78억 원가량의 마이너스 흐름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안랩의 순현금흐름은 -201억 원으로 집계돼 2018년 대비 마이너스 전환했고, 이에 따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역시 감소하게 됐다.

현금성자산은 감소했지만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기타유동금융자산과 정보부조금 등이 늘면서 전체 유동자산은 되레 늘었다. 여기에 유동부채는 감소하면서 유동성비율은 366.61%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 “세계 첫 솔더볼 개발... 글로벌 업체 양산 평가 중”

엠펙전자, 상반기 내 납품 전망

엠펙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0μm 이하 미세볼 대응이 가능한 솔더볼의 글로벌 기업 양산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상반기 내 납품이 이뤄질 전망이다. 회사 내부에선 솔더볼 사업의 수익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엠펙전자는 100μm 이하 미세볼에 적용하는 솔더볼 신제품 CCAB(Copper Core Advanced Ball)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와 통신 관련 글로벌 회사를 통해 샘플 및 양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통신 체계가 최근 LTE에서 5G로 변경되고 있는 가운데 CCAB가 새로운 프로세스에 맞는 소재로 꼽히며 통신용 모듈을 제작하는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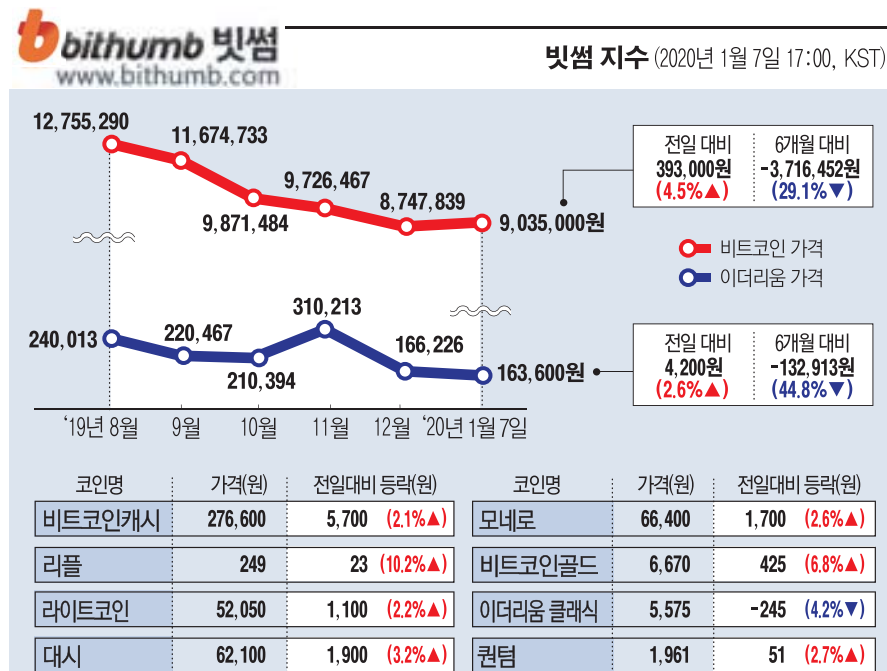
엠펙전자 관계자는 7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AP 반도체 칩의 경우 단일 보드

에 여러 종류의 통신칩(5G, 블루투스, Wi-Fi)을 실장한다”며 “기존 솔더볼 제품을 활용한 반도체 패키지 조립 시 품질 불량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AB가 5G 통신용 모듈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100μm 이하 미세볼 생산 기술은 ‘리버스 리플로우용 심재 및 반도체 패키지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기반으로 한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기술인 CCSB(Cu Core Solder Ball) 제품은 100μm 이하의 제품을 제작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안고 있다”며 “또 높은 신뢰성을 가지는 솔더 도금층 조성 변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패키지의 미세 피치(pitch) 및 고신뢰성의 대응이 제한적”이라며 “CCAB는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차세대 반도체 생산 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고희민 기자 kjm@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살 때 타. 팔 때 타. 투자 타이밍이 더 유안타. 티레이더. 인공지능 티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심바만 화의. 투자하는 방법? 티레이더. 티레이더 증권 元大證券. 티레이더 www.tRadar.co.kr | 고객센터 1588-2600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대상, 판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당사 온라인 주식매매수수료는 0.066% 등이며, (해외주식 수수료는 증권 0.3%, 상해A 0.3%) 기타수수료 및 매매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레이더, 티레이더펀드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팀 제9-62호(2019.02.28)



# 稅 부담 커진 다주택자들 “월세로 돌리자”

〈보유세〉

전세보다 반전세 선호... 강남4구 임대 계약 33%가 월세  
전세보증금 예치보다 월세가 이득... 저금리 기조도 한몫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5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64㎡형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말 세입자 B씨를 새로 맞으면서 임대 형태를 전세에서 반전세(24개월분 월세 이상을 보증금으로 받는 월세 계약)로 바꿨다. 전셋값이 2년 새 5억 원에서 5억5000만 원까지 올랐지만 보증금 2억 원대, 월세 60만 원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다. A씨는 “시세보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전세를 살겠다는 수요자가 줄을 섰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A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과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주택 임대시장에서 월세(반전세 포함)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전세 구하기에 지친 세입자들도 ‘올더 겨자

먹기’로 월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임대 계약(8209건) 가운데 월세 계약 비중은 29.2%(2398건)이다. 한 달 전(27.4%)보다 1.8%포인트(P) 올랐다. 월세 계약이 바닥을 쳤던 9월(24.9%)과 비교하면 4%P 넘게 차이 난다.

임대 수요가 많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양천구 목동에선 월세 비중이 더 높았다. 지난해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아파트 임대 계약(3280건) 중 33.8%(1106건)가 월세 계약이었다. 전월에 강남4구와 목동에서 신고된 임대 계약 3258건 가운데 월세 비중은 30.0%(977건)였다.

특히 반전세 계약이 월세 증가세를 이끌



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신고된 반전세 계약은 1319건으로, 전체 임대 계약의 16.1%를 차지한다. 2019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다. 특히 강남4구와 목동에선 임대 계약의 4건 가운데 한 건꼴(24.0%)로 반전세 계약이었다.

업계에선 주택 임대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변수로 12·16 부동산 대책을 꼽는다. 정부가 12·16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부담

이 크게 늘었다.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집주인으로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졌다.

저금리 기조도 월세의 매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목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해봤자 큰 재미를 볼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5.1%, 강남권은 6.2%다. 최근 시중 은행의 이자율이 2% 안팎인 것을 고려하

면, 월세로 계약하는 게 2.5~3배 이득이라는 뜻이다.

거꾸로 세입자로서 월세로 입주하는 게 전세로 입주하는 것보다 손해다. B씨가 입주한 A씨의 목동 5단지만 해도 그렇다. 이 자율 2.0% 기준으로 B씨가 다달이 월세 60만 원을 예금 이자로 받으려면 2년 동안 3억6000만 원가량을 예치해야 한다. 여기에 보증금 2억 원을 더하면, 전세 시세인 5억5000만 원을 웃돈다. 전세 계약 때보다 B씨가 1000만 원 넘게 밀치는 셈이다.

그런데도 B씨가 월세로 입주할 수밖에 없었던 건 최근 월세 선호현상으로 전셋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기 때문이다.

진미운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지역의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만큼 올해도 전셋값은 오르고 반전세·월세시장이 커질 것 같다”며 “상황에 따라 서정부도 전세시장을 직접 겨냥할 대책을 꺼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개인 간(P2P)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P2P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P2P법)’ 시행령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P2P법이 P2P 금융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론을 제시한다면 시행령에선 대출 한도와 투자 한도, 최소 자본금 등 구체적인 규율 방안이 담긴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시행령을 통해 P2P 대출에 LTV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LTV는 담보주택의 가치 대비 대출 상환액의 비율이다. LTV 규제가 도입되면 P2P 대출을 통해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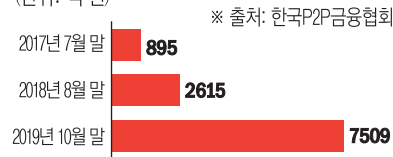
## 부동산 P2P 대출도 막히나

금융당국, LTV 규제 도입 시사  
주담대 우회로 우려에 사전 대응

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지금까지 P2P 대출은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일부 P2P 업체들은 LTV 90%까지 높이며 돈을 빌릴 사람을 모았다. 지난해만 해도 P2P업계의 개인 부동산 담보대출 누적액이 1월 3849억 원에서 11월 8044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LTV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 오르는 현상)로 P2P 금융을 통한 부

P2P 금융 부동산 담보대출 누적액 (단위: 억 원) ※ 출처: 한국P2P금융협회



동산 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그동안 풍선효과를 꾸준히 경계해왔다. 금융위는 지난해 19일 “P2P 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점검·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 날 업계를 소집해 부동산 정책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23일 일

부 P2P 업체가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선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압박의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에 LTV가 도입되는 걸 막기 위한 교육책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잖은 P2P 업체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P2P 업계에선 정부 움직임이 과민하다며 불멘소리를 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에 인한 풍선효과는 없을 순 없겠지만, P2P 대출의 금리 등을 생각할 때 그 양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에 빈틈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상징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종화 기자 pbell@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TV에 게재됐습니다

## 집값 출처도 꼼꼼하게 조사 9억 넘으면 서류 15종 내야

앞으로 서울·수도권 임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가 납세 대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해진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 증여·상속액만 밝혔던 것과 달리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 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 서류는 총 15종으로 규정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르면 3월 시행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2,800원 | 252쪽

##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 토닥 토닥

##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뜩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려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고즈윈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B4 4층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 ‘대마 흡연’ CJ 장남 징역 5년 구형

### 검찰, 항소심도 1심 구형량 유지... 이선호 “어리석은 행동 반성”

검찰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 씨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제 인생의 큰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는 더욱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사 과정에서 직

접 구속을 자처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곧 출산 예정인 아이에게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아버지가 되겠다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에게 보호관찰·사회봉사·마약 치료 강의 등 부가형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비슷한 사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마리투스 증후군(CMT)과 사고로 인해 수술할 부위가 남아 있고, 철심이 아직 3개가 있어 통증도 있는 상태”라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주시면 재활 치료를 진행할 생각이 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화물에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20개와 백팩에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 대마 흡연기구 3개 등 1000달

리(약 119만 원) 상당의 변종 대마를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4월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일 세관에 적발된 이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했고, 이튿날 다시 이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씨는 다음날 오후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검찰은 같은 날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48일 만에 석방됐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추미애·윤석열 ‘어색한 회동’ 이번 주 중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상반된 표정으로 첫 공식 회동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jjak@

## “서울에 투자하세요” 美 순방 나선 박원순

### 3개 도시 돌며 ‘서울 세일즈’ 20개 기업과 ‘CES 2020’ 참가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의 7~16일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3개 도시(라스베이거스·샌프란시스코·워싱턴DC) 순방길에 올랐다. 2016년 이후 4년 만의 미국 순방이다.

이번 순방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 2020’ 최초 참가와 연계해 계획됐다.

박 시장은 첫 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서울시장 최초로 CES에 참가한다. CES에 동행하는 20개 혁신 기업에 세일즈 무대를 마련해주고 스마트서울의 대표상품인 ‘디지털 시민시장’ 등 혁신 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등과 네트워킹하며 서울의 스마트 도시 경쟁력과 우리 기업을 홍보한다.

실리콘밸리가 자리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창업하기 좋은 도시이자 매력적인 투자

처로서 서울을 알린다. 서울시가 지난 8년 간 추진해온 혁신 창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선전하며 적극적으로 ‘서울 세일즈’에 나선다.

존 헨네시 구글 알파벳이사회 의장과 에릭 슈미트 구글 전 회장 등과도 각각 면담한다. 스탠포드대 초청강연을 통해 차세대 혁신 리더들에게 특강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시간도 갖는다.

마지막 방문 도시인 워싱턴DC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화두로 외교·안보 분야의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좌담회에서 연설하고, 브라이언 블라타오 미 국무부 차관과도 만난다. 박 시장은 국내 지자체장 최초로 미 상공회의소에서 연설한다.

박 시장은 “CES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 에너지와 창조적인 열정, 과감한 도전을 경험하고 스마트도시 서울의 경쟁력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 교육부 ‘고등교육재정위’ 구성... 대학 재정난 논의

### 박백범 차관 사총협 만나 “등록금 인상 대신 재정 지원”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 최대 압박 요인인 사립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신년하례식 겸 1차 회담단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인철 사총협회장(한국외대 총장), 장제국 동국대 총장,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등록금 인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성명을 내고 “법정 인상을 범위 내

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하’로 정하고 있다. 2020학년도에는 최대 1.95%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돼 왔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재정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줘왔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전제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되는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박 차관에게 요구했다.

이에 박 차관은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며 “대신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대학재정의 위기를 공론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고등교육재정위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4월 기획재정부 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장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대학 총장은 “올해 4월 총선이에 정돼 있어 사실상 교육재정 논의 등을 충실히 진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COVERSTORY 웰컴 에이징

PART1. 나이 불의 미학 - 늙음과 늙음, 한 획 차이  
 PART2. 나이만큼 아름다워지는 삶 - 나이 불의 품격 '어르신나이어에게 듣는다'  
 PART3. 노화의 선물 - 백발이 빛 발하는 나이  
 PART4. 나이가 아닌 품격을 띤다 - 스타일 나는 인생  
 PART5. 웰에이징 설명서 - 나이 막으면 즐 어때  
 PART6. 우리들의 특권 - 화려한 VIP '오달세대'를 위하여!!  
 PART7. '2019 제1회 KMA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수상자 - 제2의 멋진 인생을 열다

다들어 숲  
하늘 아래 처음 열린 길

귀촌  
귀농으로 얻은 경제, 그리고 긍정의 힘  
그녀는 오랫동안 암 투병을 했다. 유방암 일기 진단을 받았었다니 실로 격렬한 싸움이었을 것이다. 음산한 죽음의 공기를 숨 쉬며 처절하게 견뎌야 했다. 알고 보면 허둥여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게 죽음이라는 고상한 소식도 있지만,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능이지 않은가.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다는 이운경씨는 썩은 불굴의 의지로 결국은 10여 년 만에 암을 물리쳤다. 투병 후반기 귀농이 일종의 묘약이었다.

두어 가이드  
중세와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불의 도시 '바쿠'  
신과 신화 인간들의 이야기가 풍성한 코카서스 3국의 첫 번째 여행지는 아ذرب라이잔의 수도 바쿠Baku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첫 여행지가 됐다.

행복해 길림 진수성찬 없어도 입맛 절로 나는 새끼귀와 우거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어떤 이유에 대한 스스로 미약하게 풀어진 해답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족한 재주로 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의 얼굴은 자작도 기대한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항산화 성분 가득,  
카카오닙스 활용 레시피

프로 골퍼 김용준 칼럼  
김용준  
돌아오라  
돌 왓슨이여

COVERSTORY 웰컴 에이징

PART1. 나이 불의 미학 - 늙음과 늙음, 한 획 차이  
 PART2. 나이만큼 아름다워지는 삶 - 나이 불의 품격 '어르신나이어에게 듣는다'  
 PART3. 노화의 선물 - 백발이 빛 발하는 나이  
 PART4. 나이가 아닌 품격을 띤다 - 스타일 나는 인생  
 PART5. 웰에이징 설명서 - 나이 막으면 즐 어때  
 PART6. 우리들의 특권 - 화려한 VIP '오달세대'를 위하여!!  
 PART7. '2019 제1회 KMA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수상자 - 제2의 멋진 인생을 열다

다들어 숲  
하늘 아래 처음 열린 길

귀촌  
귀농으로 얻은 경제, 그리고 긍정의 힘  
그녀는 오랫동안 암 투병을 했다. 유방암 일기 진단을 받았었다니 실로 격렬한 싸움이었을 것이다. 음산한 죽음의 공기를 숨 쉬며 처절하게 견뎌야 했다. 알고 보면 허둥여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게 죽음이라는 고상한 소식도 있지만,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능이지 않은가.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다는 이운경씨는 썩은 불굴의 의지로 결국은 10여 년 만에 암을 물리쳤다. 투병 후반기 귀농이 일종의 묘약이었다.

두어 가이드  
중세와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불의 도시 '바쿠'  
신과 신화 인간들의 이야기가 풍성한 코카서스 3국의 첫 번째 여행지는 아ذرب라이잔의 수도 바쿠Baku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첫 여행지가 됐다.

행복해 길림 진수성찬 없어도 입맛 절로 나는 새끼귀와 우거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어떤 이유에 대한 스스로 미약하게 풀어진 해답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족한 재주로 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의 얼굴은 자작도 기대한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항산화 성분 가득,  
카카오닙스 활용 레시피

프로 골퍼 김용준 칼럼  
김용준  
돌아오라  
돌 왓슨이여

COVERSTORY 웰컴 에이징

PART1. 나이 불의 미학 - 늙음과 늙음, 한 획 차이  
 PART2. 나이만큼 아름다워지는 삶 - 나이 불의 품격 '어르신나이어에게 듣는다'  
 PART3. 노화의 선물 - 백발이 빛 발하는 나이  
 PART4. 나이가 아닌 품격을 띤다 - 스타일 나는 인생  
 PART5. 웰에이징 설명서 - 나이 막으면 즐 어때  
 PART6. 우리들의 특권 - 화려한 VIP '오달세대'를 위하여!!  
 PART7. '2019 제1회 KMA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수상자 - 제2의 멋진 인생을 열다

다들어 숲  
하늘 아래 처음 열린 길

귀촌  
귀농으로 얻은 경제, 그리고 긍정의 힘  
그녀는 오랫동안 암 투병을 했다. 유방암 일기 진단을 받았었다니 실로 격렬한 싸움이었을 것이다. 음산한 죽음의 공기를 숨 쉬며 처절하게 견뎌야 했다. 알고 보면 허둥여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게 죽음이라는 고상한 소식도 있지만, 일단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능이지 않은가.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다는 이운경씨는 썩은 불굴의 의지로 결국은 10여 년 만에 암을 물리쳤다. 투병 후반기 귀농이 일종의 묘약이었다.

두어 가이드  
중세와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불의 도시 '바쿠'  
신과 신화 인간들의 이야기가 풍성한 코카서스 3국의 첫 번째 여행지는 아ذرب라이잔의 수도 바쿠Baku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첫 여행지가 됐다.

행복해 길림 진수성찬 없어도 입맛 절로 나는 새끼귀와 우거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어떤 이유에 대한 스스로 미약하게 풀어진 해답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족한 재주로 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의 얼굴은 자작도 기대한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항산화 성분 가득,  
카카오닙스 활용 레시피

프로 골퍼 김용준 칼럼  
김용준  
돌아오라  
돌 왓슨이여



태양과 바람의 힘을  
전기로 바꾸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씁니다.

자동차는 탄소 없이 달리고,  
공장과 빌딩은 에너지의 낭비를  
똑똑하게 잡아냅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신기술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 한국전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 “30년 재즈 사랑...외도 한번 없는 ‘재즈 덕후’죠”

### 재즈 에세이 ‘짜짜한 이야기’ 낸 방덕원 순천향대병원 교수

#### 대학 때 첫 만남...집에 재즈 LP 3000장 ‘마니아들의 성지’ 술·담배 끊고 음악과 독서 “가족들도 변화된 삶 인정해줘”

다양한 음악 장르 중 ‘재즈’는 흑인들이 필박받던 노예 시절의 아픔을 음악으로 풀어낸 것이다. ‘스윙’, ‘비밥’, ‘뿔’ 등 다양한 장르와 개성 있는 ‘즉흥연주’가 특징인 재즈는 국내에선 아직까지 마니아적 음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재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즈 입문자들을 위한 책이 최근 출간됐는데 저자가 음악 전문가가 아니라 순천향대서울병원의 방덕원(사진) 심장내과 교수다.

방 교수가 쓴 재즈 에세이 ‘짜짜한 이야기’(책엔 펴냄)에는 재즈 입문자에서 재즈 전문 블로거로 활동하기까지 30여 년간 본인이 겪고 느낀 다양한 재즈 이야기가 담겨 있다. 대학생 시절 라디오에서 우연히 접한 재즈음악에 매료되면서 단 한 번도 장르 외도 없이 ‘재즈 덕후’로 살아온 그의 재즈에 대한 해박한 식견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재즈 블로거 ‘bbjazz’로 유명하다. 다양한 재즈 앨범(LP) 음반 및 오디오 등을 소개하는 그의 블로그에는 지금까지 15만여 명의 재즈 마니아들이 찾아왔다. 그밖에 온라인 카페 및 오디오 쇼핑몰에서도 그는 재즈 지식을 전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아날로그적 음악 취향 덕에 1950~60년대 오디오를 소장 중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하나씩 모은 재즈 CD가 1500여 장, LP는 3000여 장에 이른다. 이 때문에 재즈 마니아들 사이에선 명반들을 기품 있는 추억의 음질로 감상할 수 있는 그의 집이 이른바 ‘재즈 LP의 성지’로 통한다. 그가 1990년대부터 쪽 참여해온 재즈 동호회 회원들은 옛 추억을 느끼고 싶을 때 그의 집을 찾은 정도다.



방 교수는 “두 달에 한 번 회원들의 각 집을 방문해 새로운 음반을 소개하기도 하고 다양한 오디오로 재즈음악을 들은 후 후기를 나누는 음악감상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대식 소리가 아닌 울드한 소리에 많은 회원들이 재즈의 색다름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방 교수의 이러한 재즈 사랑은 삶의 패턴도 바뀌었다. 그는 “진료 외 시간의 대부분을 재즈와 함께 하다 보니 술, 담배를 끊고 한 해 50권가량의 책을 읽게 됐다”며 “가족들도 30년간의 재즈 사랑에 변화된 제 삶을 인정해 준다”며 미소 지었다.

그의 새해 목표 역시 재즈는 빠지지 않는다. 방 교수는 “올해도 환자들을 위한 치료와 더불어 재즈의 또 다른 새로움을 느끼는 삶을 꿈꾸고 있다”며 “이번 출간된 ‘짜짜한 이야기’로 재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길 바라며 후속으로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재즈 도서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방 교수에게 입문자들을 위한 음악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그는 “레드 갈랜드(Red Garland)의 그루비(Groovy), 리모건(Lee Morgan)의 캔디(Candy) 등을 감상하며 재즈스러운(JAZZY) 2020년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며 “재즈가 난해한 음악이 아닌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사진 신태현 기자 holjiak@

###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에 김상도

국토교통부는 7일 자로 항공정책실장에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을 승진·발령했다.

김상도 신임 항공정책실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성동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 항공대에서 항공경영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문트리올총영사관·주ICAO 대표부, 항공안전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게시판

### 대한토목학회장에 한만엽 아주대 교수

대한토목학회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만엽 아주대 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다고 7일 밝혔다.

한국공학한림원 회원인 한 신임 회장은 아시아콘크리트연맹 회장을 지냈고 벤처기업 써포텍을 설립, 경영하고 있다.



## 박새로 사무관 ‘태광 총수일가에 부당 이익제공 적발’ 공정위 심결사례 연구발표회서 최우수상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세종 심판정에서 열린 ‘제19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에서 ‘대기업 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 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건을 발표한 박새로(사진)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적용한 법리,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 공유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 사무관은 부당이



이익제공 행위 입증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매우 어려운 정상가격 산출과 관련된 입증을 세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공유해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에는 ‘피내용 BCG 백신 3개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조절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태우 지식산업감사과 사무관이 선정됐다. 김 사무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끈질긴 탐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발견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법행위를 입증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해외출장서 돌아온 신동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동빈(앞줄 왼쪽) 롯데그룹 회장이 7일 새해 들어 첫 출근해 롯데월드타워 내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해외 출장 일정으로 지난주 자리를 비웠던 신 회장은 6일 귀국해 이날 첫 출근했다. 신 회장은 지주 및 BU 임원들과 정기회의를 가진 뒤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주변에 앉은 직원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사진제공 롯데지주

### 전용필 교수, 발생생물학회 회장 취임

전용필 성신여대 바이오생명공학과 교수가 한국발생생물학회 제2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발생생물학회는 발생생물학과 그 응용 연구를 촉진하고자 1995년 설립된 단체로, 회장 임기는 1년이다.



### 대법원장, 인권위원 이준일 교수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수는 약 20년간 헌법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인권법, 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연구 활동 및 입법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수직 이외에도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국회 사무처 입법지원위원 등을 역임했다.



## 韓·濠 경제교류 남다른 인연...최정우 회장, 산불 구호금 4억 출연

### 포스코 주요 원료 공급·투자국 최 회장, 양국 경험위원장 맡아

포스코가 7일 포스코 호주법인 포스코 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해 호주 산불 구호금 4억 원을 호주 적십자사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구호금은 포스코 호주법인 이사회 의결



을 거쳐 호주 적십자사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주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은 호주 동남부 지역으로 확산돼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피해가 가장 심한 뉴 사우스 웨일스 주와 빅토리아

주에서는 3일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최정우(사진) 포스코 회장은 “국가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는 호주 산불 재해 복구를 돕고 호주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며 “창립 이래 포스코의 발전과 함께한 주요 원료 공급처이자 투자처인 우방국 호주의 산불이 하루속히 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2002년부터 ‘한국·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 그룹 역할을 맡아 양국의 민간 교류에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호주로부터 연간 5조 원에 이르는 원료를 사들이는 최대 고객이자 철광석, 석탄, 리튬 등의 원료에 직접 투자한 투자자이기도 하다. 최 회장은 2018년 취임 이후 한·호 경제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기승 기자 kissoong@

### 부음

### ‘美 개념미술의 거장’ 존 발데사리

미국 개념미술가이자 교육자로 활동해 온 존 발데사리가 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AP통신이 6일 전했다. 향년 88세.

발데사리를 대변하는 뉴욕 ‘매리언 굿맨 갤러리’는 “지적이고 다정하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발데사리의 사망을 알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AP는 6피트 7인치(약 201cm)의 큰 키를 가진 그가 글자 그대로 그리고 상징적 의미에서도 미술 세계의 ‘거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천 점의 작품을 창작한 그는 명문 예술 학교로 알려진 칼리포니아대학(UCLA)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등 교육가로도 활동했다. 발데사리는 1970년 ‘화장 프로젝트(Cremation project)’로 자신이 소장한 모든 회화작품을 불태워 버렸다.

1931년생으로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등에서 미술을 공부한 발데사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에 국가 예술 훈장을 받았다. 2009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 직전에는 평생 업적 부문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국내에선 그의 작품 20여 점을 소개한 개인전이 2015년 서울 PKM 갤러리에서 열린 적이 있다. 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휘트니 미술관 등에 소장됐다고 AP는 덧붙였다.

▲박인수 씨 별세, 박재권(대우여객자동차 대표이사)·귀숙 씨 부친상, 이종덕(한국은행 상해주재원) 씨 장인상 = 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영락공원 4빈소, 발인 9일 12시, 051-790-5000

▲예종주 씨 별세, 박신홍(전 서강건설 전무이사) 씨 부인상, 박재영(롯데제이티비 대표이사)·성수(코바이노베이션 상무)·현욱 씨 모친상, 김동환 씨 장모상 = 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9일 오전 7시, 02-3410-6917

▲이재승 씨 별세, 이정호(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정익(이정익 내과의원 원장)·정권(수원지법 부장판사) 씨 부친상 = 6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김은호 씨 별세, 김학준(씨맥스 대표)·기준(개인사업)·남준(개인사업)·시연 씨 부친상, 김영민(OSEN 대표이사) 씨 장인상 = 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 발인 9일 오전 6시, 02-2258-5940

▲구본식 씨 별세, 구법모(전 SK가스·KT상무)·성모(KT 용인지점장)·영모(KT 에스테이트 차장)·영숙 씨 부친상, 홍성철(자영업) 씨 장인상 =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9일 오전 6시 30분, 031-787-1500

▲계진하 씨 별세, 노광선(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인선(칸텔레콤 대표)·애정·혜순 씨 모친상, 김길선(유레카논술학원 원장) 씨 시모상 = 7일, 부산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10시 30분, 051-933-7488

### 인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이재용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주거복지정책관 김경희 △종합교통정책관 어명소 △항공정책관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백원국

◆방위사업청 △사업감사담당관 방극철

◆한국석유공사 ◇처장 및 지사장 △기획예산처장 정영국 △자산관리화재장 이성기 △홍보문화실장 최문규 △석유정보센터장 권오복 △안전환경처장 정찬식 △E&P기획관리처장인건목 △미주/유럽사업처장 박진국 △아시아사업처장 이재석 △석유비축처장 이주현 △석유사업처장 김성원 △유통사업처장 이의성 △여수지사장 백종연 △서산지사장 박종근 △거제지사장 황호은 △평택지사장 김영철 △곡성지사장 정이교 △동해지사장 목진승

◆한국고용정보원 ◇임명 △상임이사(기획정보화본부장) 정종승

◆NH투자증권 ◇부장 신규선임 △글로벌 채권영업부 김한백

◆내일신문 △정세용 논설교문 △남봉우 논설주간 △박진범 편집국장



미국은 지금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이처럼 통제 불능인 듯한 2020년의 위기 요인에 대해 세계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가장 주요한 해법은 포용적 정책 노력이다. 즉 보호무역정책과 국제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국내의 빈부 격차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구조이며,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포용적 정책 노력이 국제적 갈등과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또 다른 위기에 대한 경고가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의 경제 불안정성을 고조시키는 세 가지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중선동 정책, 그리고 정치시스템의 붕괴를 꼽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를 필두로, 트럼프를 훔쳐 내고 있는 세계 각지의 극우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초래하고 있는 정치적 위기 요인에 더해, 미국을 위시한 주요 국가들이 이어가고 있는 팽창적 통화정책이 세계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미국 연준(FRB)과 유럽중앙은행(ECB) 그리고 일본중앙은행의 전체 자산 규모는 약 14조 달러로, 이는 2008년의 4조 달러에 비하면 3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이는 곧 2008년 금융위기 이래 단 11년 만에 주요국의 통화공급이 3배 이상 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약 10조 달러에 달하는 통화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 규모는 5조3000억 달러에 불과했다. 즉 나머지 4조7000억 달러는 결국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의 거품

형성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금융위기 이후 쏟아지는 통화공급량이 주요국 자산가격의 거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할 또 다른 경제위기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즉 2009년 3월 대비 최근의 주요국 자산가격은 21% 상승하여 명백히 자산가격 거품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거품은 각국의 빈부 격차를 더욱 키워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위시한 서방의 지도자들은 모두 정치적인 목적 아래 단기적인 경제성과지표를 위하여 확장적 통화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당초 예상치를 한참 밑돌아 2%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추정되는 가운데, 올해 유럽과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근본적 원인은, 1980년대 이래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확산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 감소와 부유층에 대한 다양한 감세조치에 의한 빈부 격차 심화와 이로 인해 최고조에 달한 사회적 갈등 구조에 있다. 이에 편승하여 트럼프와 같은 극우선동주의 정치인들이 빈부 격차의 원인을 자유무역과 시장 개방에 돌리면서 국제적인 무정부 상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 2020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올해는 전 세계 61개국에서 대선, 총선 등 주요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분노할 줄만 알고 합리적 분별력은 상실한 유권자들과 이들에 편승한 극우선동주의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해, 보호무역정책 확산과 함께 사회복지 지출은 더욱 줄이고 부자감세 정책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붕괴된 정치시스템이 초래하는 위기 요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을 붕괴시키고 다자간 자유무역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려왔던 미·중 무역전쟁이 최근 1단계 합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갈등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과 같이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에 의한 문제 해결 방

식이 자리잡으면서 국제무역기구(WTO) 체제는 물론 세계환경협약 등 모든 다자간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통제 불능인 듯한 2020년의 위기 요인에 대해 세계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가장 주요한 해법은 포용적 정책 노력이다. 즉 보호무역정책과 국제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국내의 빈부 격차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구조이며,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국의 포용적 정책 노력이 국제적 갈등과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최근의 국제적 무정부 상태를 초래한 무책임한 선동주의 정책을 남발해왔던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전략적 탄핵 논의에만 집착하는 민주당 등 미국의 모든 정치세력에, 미국 경제의 중장기적 회생을 위한 포용적 정책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문명국가들이 2020년을 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 정책과 함께 빈부 격차와 사회적 구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포용적 정책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중수의  
따뜻한 금융

IFK임팩트금융 대표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기준을 찾기가 힘들다. 기준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다. 시대정신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기심과 집단주의가 팽배한 세상. 어떠한 좋은 가치도 개인의 이기심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사람들은 불의는 참아도 나의 불이익은 참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상생의 논리를 찾을 수가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보면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람들의 열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인생이 무의미하듯이, 가치가 바로 서 있지 않은 사회가 맞는 결과

는 혼란이다. 가치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정해주고, 발전의 틀을 제공한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다. 우리 사회가 위기라는 것은 이러한 가치가 준비되지 못한 채 새로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는 시민사회,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회의 모든 조직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창출한다. 이를 실현하는 활동은 사회 모든 주체의 과제이다.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경영과 정부의 정책 운영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와 공공영역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주체이다. 조직의 존립 목적이 공공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

가치 지향의 사회

은 수익을 극대화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지만, 양질의 생산, 유통,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인 책임 이외에 준법, 윤리, 투명, 상생, 협력 등 공동체와 사회를 위한 경영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정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기업도 사회적 가치를 경영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청년, 지방소멸, 환경파괴 등 당면한 과제들과 빈부, 교육, 지역, 세대와 이념 등 사회의 곳곳에서 보이는 사회·경제·문화적인 격차와 갈등이 우리 주변 곳곳에 지뢰와 같이 산재해 있다.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ICT),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혁신들로 파생되는 사회 문제의 골이 어디까지 갈까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사회 환경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가치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가치 기반의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회 활동은 물론이고, 투자·생산·소비 등 경제활동의 과

정에서도 가치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새해에는 사회적 가치가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의 중요한 준거 기준이 되면 좋겠다.

사회는 여러 조직들과 이해관계자, 국민 공동체가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독려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기본법을 제정하고 우리 사회에 사회적 가치가 사회구성원들의 활동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인정하고 보상해주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사회적 가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가 모든 조직의 목표와 전략에 내재되어야 한다. 가치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없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엘비스 프레슬리 명언  
"진실은 태양과 같다. 잠깐은 막을 수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

미국 가수 겸 배우. 로큰롤의 탄생과 발전, 대중화에 앞장섰고, 팝·컨트리·가스펠 음악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흑인 음악을 훔친 백인 가수, 또는 싹새 음악 시장의 개척자'라는 평을 듣는 그의 대표곡으로 'Hound Dog' 'Love Me Tender' 등이 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35-1977.

☆ 고사성어 / 홍로점설(紅爐點雪)  
뜨거운 화로에 눈을 뿌리면 곧 녹아 없어지듯, '의혹이나 사사로움 욕심이 순식간에 눈처럼 녹아 사라진다'는 뜻으로, 큰 힘 앞에 맥을 못 추는 작은 힘을 말한다. 원문은 '발경계 단 화로(火爐) 위에 한 점의 눈이 녹는다[紅爐上一點雪]'로 큰 일에 작은 힘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함을 비유하기도 한다. 원전은 속근사록(續近思錄).

☆ 시사상식 / 자연성장률  
노동인구의 증가율과 기술 진보율(노동생산성의 상승률)을 합한 것. 이는 기술적인 조건이나 인구 변동에 따라 그 조건에 알맞은 최대한도로 가능한 성장률이며 현실의 성장률이 자연성장률과 완전히 같아지게 되면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

☆ 속담 / 쇠 먹은 똥 사지 않는다  
뇌물을 먹으면 반드시 효과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유머 / 목사는 모두 죄인  
한 동네 네 명의 목사가 대화 중에 '모두 죄인'이란 사실에 의견이 모였다. 한 목사가 '종종 술 생각입니다. 아제도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라고 하자 두 번째 목사는 '난 가끔 도박 생각이 납니다. 토요일 밤 밤새워 고스톱 쳤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세 번째 목사는 '난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 유혹을 참기 힘들어요'라고 했다.

마지막 차례 목사가 한 말. '난 그런 것들에 관심 없어요. 단지 이 자리를 뜨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수다를 떨게 될 겁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보름 사회경제부/fullmoon@

'秋風'에 다시 고개 드는 '尹 사퇴설'

직폭력배 재소탕하듯 한다"며 검찰을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수사 대상에 따라 검찰 수장의 자리가 바람 앞 등불처럼 흔들리는 것은 큰 문제다. 검찰 청법 12조 3항은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1988년 법 제정 당시 취지는 권력으로부터

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하지만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임명된 21명의 검찰총장 중 8명만 임기를 다 채울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물론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핵심이다. 만약 검사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언제든지 인

사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댔다'는 이유로 검찰 조직과 수장에게 압박이 가해진다면 검찰개혁은 요란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은 중요하다. 현행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부에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처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윤 총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이 어떻게 현명하게 작동하는지 지켜볼 때다.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중 큰 폭의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검찰 내부는 '폭풍전야'다. 대검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팀까지 '윤석열 사단' 해체 시나리오가 불거지며 '검찰총장 사퇴설'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추미에 췌' 인사가 윤석열 총장을 옥죄는 '우회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그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헌법 권한을 앞세워 힘을 실어줬다. 추 장관도 취임식에서 "뿌리부터 바꾸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 총장 사퇴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 수사 때도 검찰총장 교체설이 나왔다. 청와대는 "내란음모 사건, 전국 조



#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 국무조정실이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16년도 ODA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선진국인가'라는 질문에 국민 47.6%가 '아직 아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같은 선진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발언에 힘입어(?)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선언했다. 정부가 선진국이라고 선언했지만 '과연 한국은 선진국인가'에 대한 질문에 선뜻 '선진국'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드물다.

2015년 김형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가 이투데이 행사에 참석해 선진국 개념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김 교수는 "국가는 형벌국가에서 법치국가, 법치국가에서 질서국가로 성장하는데 질서국가가 돼야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을 꺼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법치국가로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면서 "굳이 국민이 법집행자가 있는 없는 간에 사회규범을 스스로 잘 지키는 수준까지 가야 진정한 질서국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과 국회의 법위반 관행을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질서국가는커녕 법치국가도 초입에 겨우 다다른 것 같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비롯해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사건, 2016년 진경준 검사장 뇌물 의혹 사건 등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 수

## 데스크칼럼

신 동 민  
정치경제부장



사가 공정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의 뛰어난 수사력을 봤을 때 더욱 그렇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법위반 사례도 마치 '관행'으로 포장돼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라는 회의감이 밀려온다. 그동안 민중항쟁으로 만들고 지켜온 법치국가를 이들 권력 기관들이 오히려 흔들고 있어 세계 12위 경제대국임에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다.

질서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규범 준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의 규범준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국민은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는 고사하고 단지 '노블레스 말라드(NoblesseMalade·부패한 지도층)'만이라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오죽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반대어인 '노블레스 말라드'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을까. 현재 세계 경기는 좋지 않다. 특히 새해

초부터 미국과 이란이 정면충돌하는 악재가 발생해 우리 경제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장기화로 한반도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장기불황에 대비해 사업비와 경비 절감, 조직슬림화를 새해 경영목표로 내세우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새해를 맞아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 희망을 꺾지 않으려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사회지도층의 건강한 뉴스만 봤으면 좋겠다. 올해 검찰이 스스로 개혁해 부패 검사와 국민의 검사로 거듭났다는 소식을 1면 메인뉴스로 꼭 보도하고 싶다. 아울러 국회 여당과 야당이 합심해 민생·경제법안을 만들어 기업 하기 좋은 나라,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또 사회 지도층과 그 자녀들이 솔선수범해 어려운 이웃의 귀감이 됐다는 뉴스도 내고 싶다. 당장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유치원 3법과 데이터 3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통과시키고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도 통과시켰다는 뉴스를 신고 싶다.

이 같은 뉴스가 올 한 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도 법치국가를 넘어 질서국가로 진입해 전 세계에 당당히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올 한 해 행복한 뉴스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해 본다. lawsdm@

## 사설

### '함께 잘 사는 나라', 기업이 마음껏 뛰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국정 전반의 지난 성과를 평가하면서 올해 역점을 둘 국정운영 구상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노동존중, 복지, 혁신성장, 부동산시장 안정 등 경제와 민생에 신년사의 가장 큰 비중을 할애했다. 엄중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경제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고, 주 52시간제 안착과 합리적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혁신을 강화하고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투기억제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운영 방향과 경제활력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현실인식의 절박감이 떨어진다. 그동안 성과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한 자찬(自讚) 일색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작년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이며, 소득분배지표가 크게 좋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금 쏟아부어 만든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만 급증했을 뿐, 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인 40대·제조업 고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혁신의 가

속화로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넘었다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장벽으로 투자가 가로막혔다고 하소연이다.

작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도 힘겹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다. 경제 비뚤목인 수출이 10.3%나 줄었다.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에 그쳐 사상 최저다.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서울 집값은 폭등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또다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100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 가동,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늘리고, 신산업을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타협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4년차다. 이제 정책 비전은 공허하다.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으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성과를 내야 한다. 경제활력 회복의 길은 먼 데 있지 않다. 시장이 체감하는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뛴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 기업·노동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다급한 이유다. 기업할 자유만 높이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는 절로 일어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소득이 증가해 경제가 선순환한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조건이다.

## 하유미의 고공비행

산업부 차장



### '기생충·BTS'가 던진 메시지

일제히 '소통과 공감대'를 짚는다.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표현해 단 1%의 오해와 비약 없이 국경을 초월한 소통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한국 영화의 힘을 알린 기념비적 사건이자, 우리만이 느꼈던 가장 한국적인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도 공감될 수 있다는 성공 전략을 찾아낸 셈이다. 소통을 외치며 직접·호칭 파괴로 표면적·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조직 내 의사 결정 방식과 소통 구조는 여전히 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 기업들과 대조된다. 오죽하면 '청바지 입은 꼰대'라는 말이 나왔을까.

'21세기 비틀스'라는 별명까지 얻은 BTS는 지난해 빌보드 뮤직 어워드 2관왕을 차지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트윗된 가수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 올 들어서는 연초부터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새해맞이 BTS 공연을 보기 위해 150만 명의 팬이 몰려 '한국어 폐장'을 하는 진귀한 장면을 연출해냈다.

BTS의 놀라운 장악력은 사실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결과다. '열정'과 '실력'이라는 기

본 베이스에 오랜 기간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SNS를 통해 BTS의 팬클럽인 '아미(Army)'들이 소통하고 결집해왔다. 팬들이 가장 원하는 니즈는 바로 '소통'이었기 때문이다. 팬들을 단순한 팬덤이 아닌 '고객'이라는 가치로 승화시키기도 했다. 이를 대면 해외 공연에서 듣지 못하는 관객을 위해 그 자리에서 바로 수화를 해주는 모습이 전하지며 전 세계 아미를 더욱 결집시켰다. 진정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아닐까 싶다.

사실 '대중문화와 팬', '기업과 고객'을 엮어 성공 전략을 비교하고 따진다는 자체가 어불성설(語不誠說)일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기생충'과 BTS에 대해 전 세계가 왜 열광하는지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도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 기업들도 공감하고, 나아가 배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올해는 '외환위기 이후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라고 기업들이 하소연했던 지난해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 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우리 기업의 한 일원으로서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희망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jscs508@

### 세무, 특! 현명한 기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잘나가던 중견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고민에 빠졌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 자녀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줘야 하는데 세금이 걱정이다.

증여세, 상속세 문제는 비단 유형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에 그치지 않고, 운영하던 사업체를 자녀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와는 다르게 운영하던 사업을 물려주는 경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지속경영을 지원해주는 제도의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할 때면 상속세의 상당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가 까다로우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

상속인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기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며, 상속인이 18세 이상이고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기업에 종사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사업의 영위 기간별로 최소 200억 원에서 5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재산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해 상속공제를 받았다 해도 상속 이후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받은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후 7년간 평균 근로자 수를 100% 이상 유지해야 하고, 상속 당시의 업종을 유지, 기업용 자산을 일정 비율로 유지(예외적 처분 허용)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고액의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 압도적 1위 LG 올레드 TV

〈OLED TV 판매량 기준〉

2019 CES 최고 TV 선정 | R9

세계 4대 디자인상 석권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DEA, iF 디자인 어워드, 굿디자인 어워드 | R9

2019 TV 비교 평가 올해의 최고 TV

HDTVtest Shootout | 65C9

유럽 10개국 최고 TV 1위

유럽 10개국 소비자 매거진 평가 1위 | 65C9

글로벌 TV 15개 제조사, OLED 선택

2019년 11월 기준

세계가 알아보는 최고의 기술  
결국 선택은 LG 올레드 TV입니다

